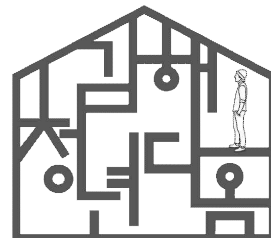


정책감사팀
2022-12

청년<sup>·</sup>김해

# 김해시 청년 지원방안 연구

2022



Gimhae Youth DAOM

- 본 연구보고서는 청년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연구보고서는 김해시복지재단 및 김해청년다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55-310-8564, E-mail: kdj3505@ghwf.or.kr

## 연구진

---

연구주관 기관명		(재)김해시복지재단
연구공동 기관명		김해청년센터 김해청년다움
연구책임	김대준	(재)김해시복지재단 정책감사팀
공동연구	박해성	김해청년센터 김해청년다움
연구보조	김정인	김해청년센터 김해청년다움
연구보조	오경아	김해시청 복지정책과

---





# 목 차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8
<b>제2장. 청년 정책 및 일반 현황</b> .....	9
제1절. 청년 정책 현황 .....	11
제2절. 청년 일반 현황 .....	25
<b>제3장.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분석결과</b> .....	33
제1절.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결과 .....	35
제2절.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빈도분석 결과 .....	37
제3절.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교차분석 결과 .....	85
제4절.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영향요인분석 결과 .....	99
<b>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b> .....	107
제1절. 결론(주요 연구결과) .....	109
제2절. 김해시 청년 지원 방안(정책 제언) .....	119

참고문헌

## 표 목 차

<표 1-1> 표본 설계 내용 .....	5
<표 1-2> 조사방법 및 기간 .....	5
<표 1-3> 연구체계도 .....	5
<표 1-4> 조사항목 .....	6
<표 2-1> 사업비 현황 .....	13
<표 2-2> 재원 투자 계획(일터) .....	14
<표 2-3> 재원 투자 계획(삶터) .....	15
<표 2-4> 재원 투자 계획(놀이터) .....	16
<표 2-5> 분야별 과제 목록 .....	17
<표 2-6> 세부추진계획 .....	19
<표 2-7> 우리나라 연령별 청년 인구 .....	25
<표 2-8> 우리나라 청년 인구 추이 .....	26
<표 2-9> 경상남도 연령별 청년 인구 .....	27
<표 2-10> 경상남도 청년 인구 추이 .....	28
<표 2-11> 김해시 연령별 청년 인구 추이 .....	29
<표 2-12> 김해시 읍면동별 청년 인구 추이 .....	30
<표 2-13> 김해시 성·연령·읍면동별 청년 인구 .....	31
<표 3-1> 일반적 사항 .....	36
<표 3-2> 청년 인식 정도 .....	37
<표 3-3> 청년의 범위 .....	38
<표 3-4> 청년의 시작 나이와 종료 나이 .....	38
<표 3-5> 청년을 설명하는 단어별 동의 정도 .....	40
<표 3-6> 청년의 문제나 어려움 정도 .....	41
<표 3-7> 결혼에 대한 생각 .....	42
<표 3-8>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 .....	43
<표 3-9> 직업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 .....	43
<표 3-10> 앞으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 .....	44
<표 3-11> 여건이 허락한다면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 .....	44
<표 3-12> 김해를 떠나고 싶은 이유 .....	45
<표 3-13> 김해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 .....	47
<표 3-14> 청년정책 분야 중요도 .....	49

<표 3-15> 청년정책 분야 만족도 .....	52
<표 3-16> 청년정책 분야 이용경험 .....	53
<표 3-17>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지원 필요 정도 .....	55
<표 3-18>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 정도 .....	56
<표 3-19> 월 지출액 중 비중이 높은 순 .....	57
<표 3-20> 월 평균 지출액 .....	58
<표 3-21> 월 평균 소득액 .....	59
<표 3-22>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	60
<표 3-23>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 .....	61
<표 3-24> 현재 근로 유무 .....	62
<표 3-25> 근로형태 .....	62
<표 3-26>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업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 .....	63
<표 3-27> 근로활동 이외에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종류 .....	63
<표 3-28> 동거인의 종류 .....	64
<표 3-29> 거주 중인 곳의 주거형태 .....	64
<표 3-30> 거주 중인 곳의 점유형태 .....	65
<표 3-31> 거주 중인 곳의 주거비용 .....	65
<표 3-32> 거주 중인 곳의 주거비용 부담 .....	66
<표 3-33> 주거환경 만족도 .....	66
<표 3-34> 문화/여가/사회참여 선호 정도 .....	68
<표 3-35> 문화/여가/사회참여 참여 정도 .....	70
<표 3-36>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는 경로 .....	71
<표 3-37> 문화/여가/사회참여 만족도 .....	71
<표 3-38> 김해시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건 .....	72
<표 3-39> 김해시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문제 .....	73
<표 3-40> 김해시 생활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74
<표 3-41>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75
<표 3-42>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	76
<표 3-43> 사회적 지지 .....	79
<표 3-44> 회복탄력성 .....	82
<표 3-45> 우울 .....	84

<표 3-46>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생각 .....	85
<표 3-47>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 .....	86
<표 3-48>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1순위) .....	86
<표 3-49>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1순위) .....	87
<표 3-50> 성별에 따른 근로형태 .....	87
<표 3-51> 성별에 따른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는 경로 .....	88
<표 3-52> 성별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1순위) .....	89
<표 3-53> 성별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문제(1순위) .....	90
<표 3-54> 성별에 따른 김해시 가족형성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 .....	91
<표 3-55> 연령에 따른 거주하고 싶은 지역 .....	92
<표 3-56> 연령에 따른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 .....	92
<표 3-57> 연령에 따른 김해를 떠나고 싶은 이유(1순위) .....	93
<표 3-58> 연령에 따른 김해를 떠나기 싫은 이유(1순위) .....	93
<표 3-59> 연령에 따른 지출액 중 지출 비중이 높은 순위(1순위) .....	94
<표 3-60> 연령에 따른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느끼는(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 .....	95
<표 3-61> 연령에 따른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1순위) .....	95
<표 3-62> 연령에 따른 근로형태 .....	96
<표 3-63> 연령에 따른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는 경로 .....	96
<표 3-64> 연령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1순위) .....	97
<표 3-65> 연령에 따른 김해시 가족형성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 .....	98
<표 3-66> 개별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분석 .....	100
<표 3-67> 개별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분석 .....	102
<표 3-68> 개별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분석 .....	104
<표 3-69> 개별특성에 따른 우울 분석 .....	105
<표 4-1> 김해시 청년 정책 지원방안 .....	123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 .....	9
<그림 2-1> 경상남도 청년 정책 비전과 정책목표 .....	11
<그림 2-2> 경상남도 청년정책 체계도 .....	12
<그림 2-3> 경상남도 청년 정책 주요과제 .....	13
<그림 2-4> 김해시 청년 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	19
<그림 2-5> 김해시 청년 정책 2022년 사업계획(부서별) .....	20
<그림 2-6> 김해시 청년 정책 2022년 사업계획(분야별) .....	21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 경상남도 및 김해시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 증가

-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청년 인구의 순유출 규모 증가
- 경상남도를 비롯한 김해시의 경우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매력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김해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 경상남도 청년 인구 유출 심화, 최근 5년간 164,013명 감소

: '18년 1,023,125명 → '22년 859,112명

○ 김해시 전체인구는 최근 5년간 1,457명 증가

: '18년 533,672명 → '22년 535,129명

○ 청년 인구는 19,376명 감소

: '18년 176,505명 → '22년 157,129명

○ 청년 인구 비율 3.8%p 감소

: '18년 33.1% → '22년 29.3%

#### □ 청년정책 시행에 따른 김해시 청년 실태조사 필요

- '20년 12월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5년간('21~'25)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sup>1)</sup>
- (일자리)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21년도 55.5만 구직자 지원 및 청년창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주거) '25년까지 도심 내 청년 특화주택 7.69만호 등 27만 3천호 공급(대학생 기숙사 3만 호 포함)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 감축, (교육) '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대학

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20.12.2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 및 혁신공유대학 48개교 지정을 통해 미래사회 선도인재 10만명 양성, (복지·문화)희망저축계좌 신설로 '25년까지 청년 10만명 자산형성 지원, 매달 한 번은 문화가 함께하는 삶 실현, (참여·권리)정부위원회 청년참여 대폭 확대 및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 '20년 5월 '20년 경상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확정하고 9개 분야 126개 세부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sup>2)</sup>
- 김해시는 '18년 경상남도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팀 신설과 함께 김해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 '22년 '2022 김해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63개 사업 44,184백만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임.
-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정책의 수립과 향후 김해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상황과 정책 요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음.

## 2. 연구목적

- 김해시 청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파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경상남도 보도자료(2020.5.6.), '경상남도 본격적인 청년특별도 조성 사업 추진'

### 3. 조사의 기본 설계

#### 가. 표본 설계(Sample Design)

〈표 1-1〉 표본 설계 내용

구 분	내 용
모집단	김해시 만19세~39세 청년(관계인구 포함 <sup>3)</sup> )
표본추출틀	김해시 주민등록인구 중 만19세~39세 청년(관계인구 포함)
표본크기	690명(유효표본)
표본오차 <sup>4)</sup>	±3.73%p (95% 신뢰수준)
표본추출법	할당표본추출법, 판단표본추출법
표본추출단위	개인
조사단위	개인

#### 나. 조사방법 및 기간

〈표 1-2〉 조사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조사방법	1:1 개별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병행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22년 10월 1일 ~ 12월 8일(69일간)

### 4. 연구체계

〈표 1-3〉 연구체계도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청년다음	김해시 시민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계획 수립</li> <li>- 설문지 제작 및 검토</li> <li>- 데이터 입력 및 분석</li> <li>- 결과보고서 작성</li> <li>- 결과공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연구 설문조사 협력</li> <li>- 청년 연구 관련 자문</li> <li>- 연구관련 홍보</li> <li>- 정책제안과 관련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연구 설문조사 협력</li> <li>- 19개 읍면동 설문조사</li> </ul>

3) 관계인구란 지역에 새롭게 이주한 '정주인구' 나 여행이나 관광으로 방문하는 '교류인구' 가 아닌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인구를 말함.

4) 표본오차란 동일한 과정의 조사를 100번 했을 경우 결과값 중 95번은 표본오차 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조사의 경우 표본크기가 690개로 최대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73%p 정도임.

## 5. 조사항목

〈표 1-4〉 조사항목

영역	세부항목
청년 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인식 여부</li> <li>· 청년의 범위(시작시기, 종료시기)</li> <li>· 청년의 시작 나이와 종료 나이</li> <li>· 청년을 설명하는 단어 동의정도</li> <li>· 청년의 문제나 어려움 정도</li> </ul>
청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생각</li> <li>·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li> <li>· 직업 선택에 중요한 요소</li> <li>· 거주하고 싶은 지역</li> <li>·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li> <li>· 김해를 떠나고 싶은 이유</li> <li>· 김해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li> </ul>
청년 정책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 분야(중요도, 만족도, 이용경험)</li> <li>· 청년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외부지원 필요정도</li> <li>· 청년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본인의 노력정도</li> </ul>
청년 실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지출액 비중이 높은 순</li> <li>· 월 평균 지출액</li> <li>· 월 평균 소득액</li> <li>·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느꼈던 어려움</li> <li>·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li> <li>· 근로 유무</li> <li>· 근로 형태</li> <li>· 근로 만족도(불만족 이유)</li> <li>· 근로활동 외 소득 창출 노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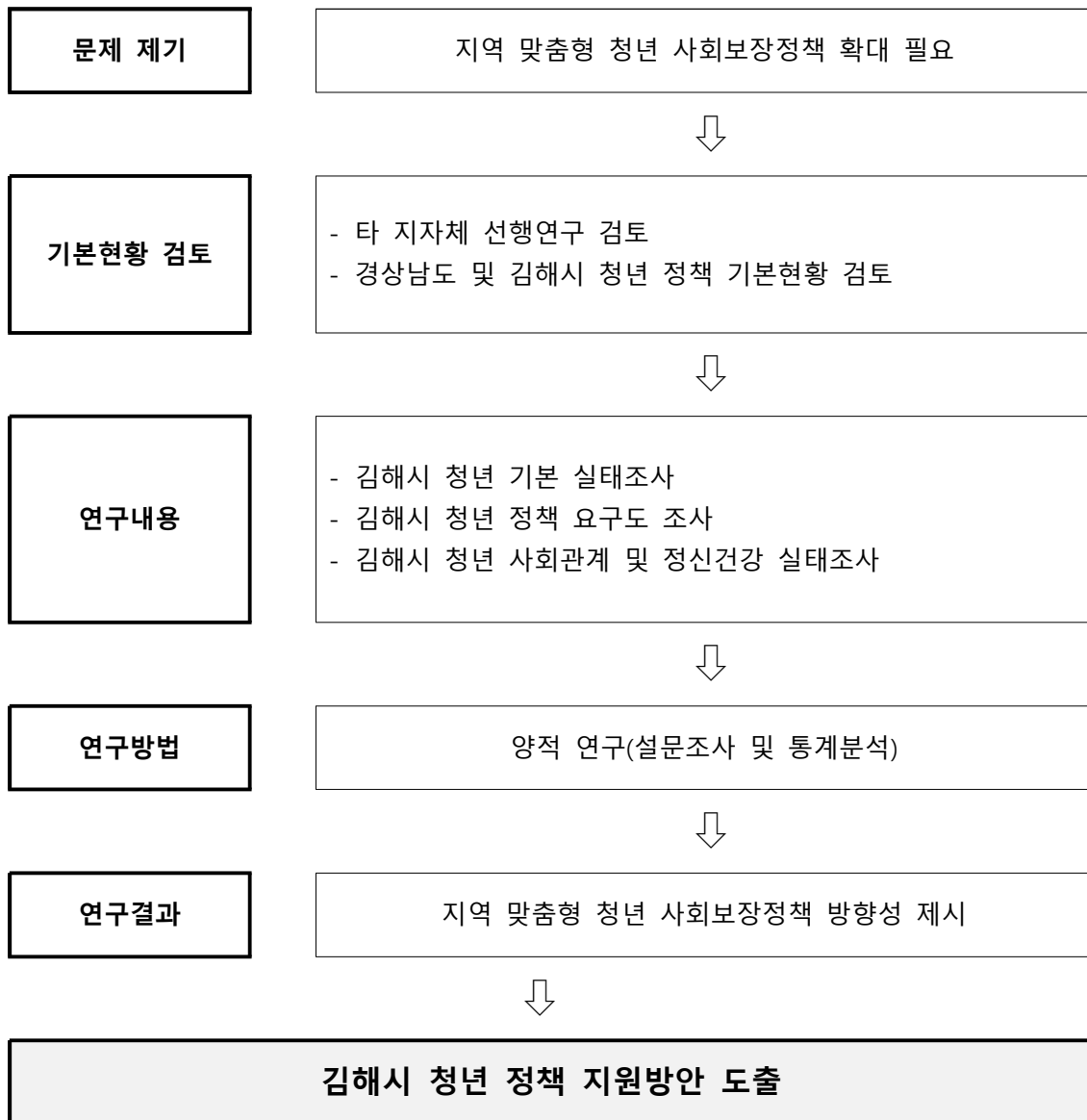
영역	세부항목
청년 실태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거인 유무 및 종류</li> <li>· 거주지의 주거형태</li> <li>· 거주지의 점유형태</li> <li>· 거주지 주거비용 부담</li> <li>· 거주지 주거비용 충당</li> <li>· 주거환경 만족도</li> </ul>
청년 실태 (문화/여가/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여가/사회참여 선호하는 정도</li> <li>· 문화/여가/사회참여 참여 정도</li> <li>· 문화/여가/사회참여 이용 경로</li> <li>· 문화/여가/사회참여 만족도</li> </ul>
청년정책 요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의 중요한 요건</li> <li>·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문제</li> <li>·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정책 관련</li> <li>· 결혼, 출산 등 가족형성 지원 정책 관련</li> </ul>
청년 사회관계 및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지지</li> <li>· 사회심리적 스트레스</li> <li>· 회복탄력성</li> <li>· 우울 정도</li> </ul>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연령</li> <li>· 취업유무</li> <li>· 교육수준</li> <li>· 가구원 수</li> <li>· 결혼상태</li> <li>· 자녀여부</li> <li>· 거주지역</li> </ul>

## 제2절

##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와 같음.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



## 제2장. 청년 정책 및 일반 현황

제1절. 청년 정책 현황

제2절. 청년 일반 현황



## 제2장

## 청년 정책 및 일반 현황

### 제1절

### 청년 정책 현황

#### 1. 경상남도 청년 정책(2019~2023년 청년 정책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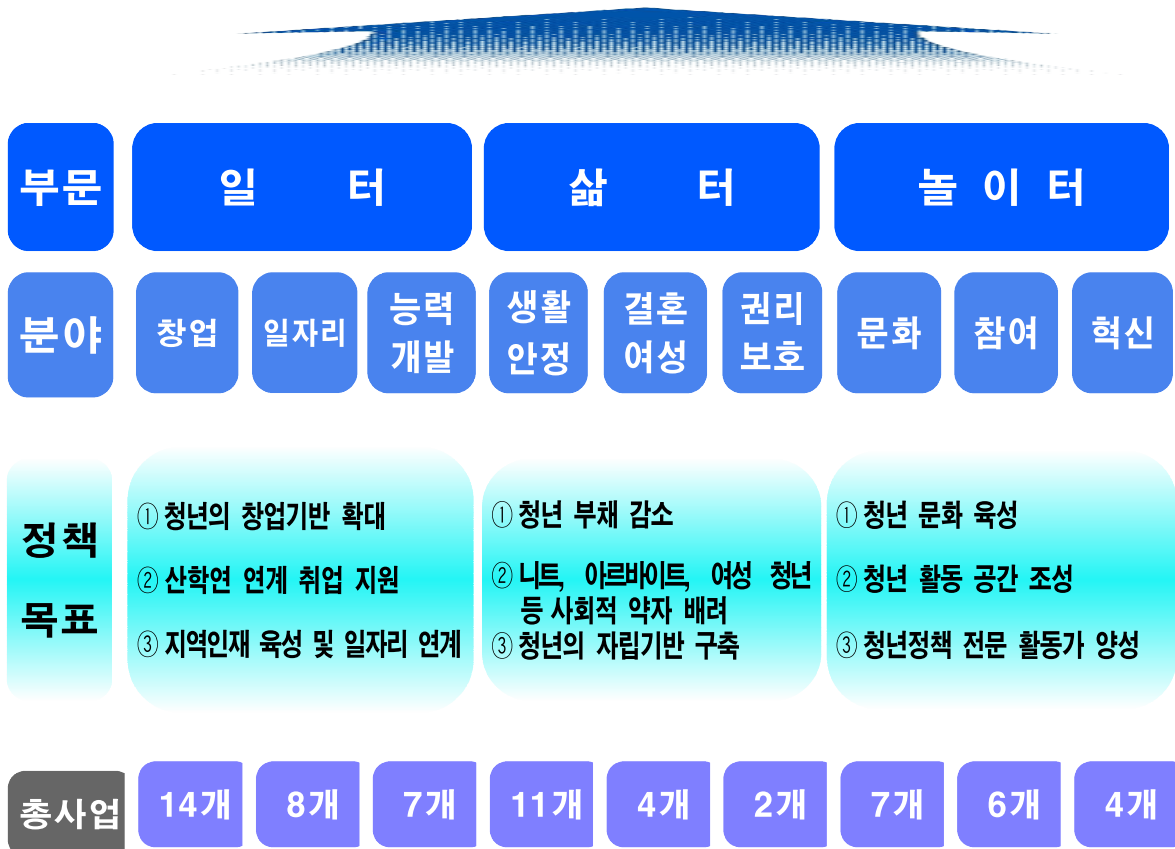
##### 가.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

##### 1) 비전과 정책목표

<그림 2-1> 경상남도 청년 정책 비전과 정책목표

### 비전

경남청년 꿈을 기회로, 기회를 성장으로



출처: 경상남도, 2020.

## 2) 경상남도 청년정책 체계도

<그림 2-2> 경상남도 청년정책 체계도



출처: 경상남도, 2020.

## 3) 분야별 추진과제

### 가) 추진방향

- 정책 수립·집행·평가 각 단계별 청년 참여로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
- 도, 시·군, 민간 등의 참여확대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 청년센터, 청년일자리플랫폼, 시군 청년터 등 중간지원조직과 연계 강화
  - : 시군,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플랫폼 등의 정책 참여 확대
- 도정 4개년 과제, 청년 제안 과제, 경남연구원 제안 과제, 부서 제안 과제, 기존사업,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과제 발굴
  - :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청년정책 수립 제안과 도 위원회 심의 선정

출처: 경상남도, 2020.

나) 주요과제: 3개 부문, 9개 분야 63개 과제

<그림 2-3> 경상남도 청년 정책 주요과제



출처: 경상남도, 2020.

다) 총사업비: 664,672백만원

- 분야별: 창업(234,190백만원), 일자리(125,415백만원), 능력개발(34,544백만원), 생활안정(92,935백만원), 결혼여성(161,395백만원), 권리보호(125백만원), 참여(6,340백만원), 혁신(비예산, 센터 사업)
- 연차별 예산

출처: 경상남도, 2020.

<표 2-1>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요예산	664,672	119,607	134,952	134,278	138,617	137,218
비율(%)	100	18	20.3	20.2	20.9	20.6

출처: 경상남도, 2020.

라) 재원조달 방법

- 청년정책 총괄 및 청년위원회 등 경비: 청년정책 담당부서 예산확보
- 청년정책 단위사업별 소요예산: 실과 단위 예산확보

출처: 경상남도, 2020.

나. 정책 부문별 주요과제

1) 일터(3개 분야, 29개 과제)

가) 주요내용

(창업 과제)	창업사관학교 분리유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지원,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창업보육센터 운영, 청년창업희망센터 구축, 창원산단 청년 기술창업 특성화 사업,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청년 창업농 성공경영 원스톱 서비스, 청년 농업인 경쟁력 향상,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 장업보유센터, 청춘 푸드트럭 창업 지원
(일자리과제)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 사무장 채용,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능력 개발)	청년EQ(취업가이드), 고졸(예정)자 취업 특화 과정, 청년취업 멘토링 콘서트, 경남형 포트랙 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역인재 육성 사업, 지능형 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

출처: 경상남도, 2020.

나) 재원 투자 계획

<표 2-2> 재원 투자 계획(일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소요예산	394,149	75,398	83,196	78,454	78,549	78,552
창업 분야	234,190	37,630	49,092	49,092	49,188	49,188
일자리 분야	125,415	30,687	27,066	22,554	22,554	22,554
능력개발 분야	34,544	7,081	7,038	6,808	6,807	6,810

출처: 경상남도, 2020.



## 2) 삶터(3개 분야, 17개 과제)

### 가) 주요내용

- (생활안정)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부실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서민자녀 대학 입학장 장학금 지원, 청년 깡이어, 저임금 프리랜서 청년 씨앗 통장, 경남상생 공제사업, 경남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 (결혼여성) 작은 결혼식, 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 및 지원, 청년 여성 생애주기별 지원, 일가정 양립 시범기업 확산
- (권리보호) 청소년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실태조사

출처: 경상남도, 2020.

### 나) 재원 투자 계획

<표 2-3> 재원 투자 계획(삶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소요예산 (백만원)	254,455	41,802	48,611	52,392	56,529	55,121
생활안정 분야	92,935	13,093	18,796	20,296	21,175	19,575
결혼여성 분야	161,395	28,684	29,790	32,071	35,329	35,521
권리보호 분야	125	25	25	25	25	25

출처: 경상남도, 2020.

### 3) 놀이터(3개 분야, 17개 과제)

#### 가) 주요내용

(문화 분야)	청년 버스킹 공간 및 청년 문화거리 조성, 청년 예술인 육성, 경남도립미술관 인턴교육, 청년 K-Star 밀양 연극 아카데미 지원,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 청년 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청년 예술인 파견 지원
(참여 분야)	청년 활동 공간 지원, 경상남도 위원회 청년 할당제, 경상남도 청년 사랑방 지원,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경상남도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시군 청년터 조성
(혁신 분야)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및 채용비리 예방, 청년 오프라인 홍보 플랫폼, 청년정책 전문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청년 프로젝트 지원

출처: 경상남도, 2020.

#### 나) 재원 투자 계획

<표 2-4> 재원 투자 계획(놀이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소요예산 (백만원)	16,068	2,407	3,145	3,432	3,539	3,545
문화 분야	9,728	1,687	1,925	2,032	2,039	2,045
참여 분야	6,340	720	1,220	1,400	1,500	1,500
혁신 분야	비예산, 청년센터 사업					

출처: 경상남도, 2020.

## 2) 분야별 과제 목록

<표 2-5> 분야별 과제 목록

부 단	분야	사 업 명	총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구분	담당부서	
<b>총 합 계 (63)</b>			<b>664,672</b>	도정4개년 22, 청년 11, 경발연 6, 부서 3, 기존 21			
<b>일 터 부 분 소 계 (29)</b>			<b>394,149</b>	도정4개년 13, 경발연 1, 기존 15			
일	창 업	<b>창업 분야 소계 (14)</b>		<b>234,190</b>	도정4개년 4, 경발연 1, 기존 9		
		1	청년 창업사관학교 분리유치	300	1개소	도정4개년	경제기업정책과
		2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지원	11,550	22팀	기존사업	경제기업정책과
		3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	1,375	75팀	기존사업	경제기업정책과
		4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3,000	1,000명	기존사업	경제기업정책과
		5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사업	4,915	125팀	기존사업	경제기업정책과
		6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4,100	11개대학	기존사업	경제기업정책과
		7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운영	500	130개소	기존사업	경제기업정책과
		8	청년창업희망센터 구축	900	1개소	기존사업	경제기업정책과
		9	창원산단 청년 기술창업 특성화 사업	1,799	80팀	기존사업	산업혁신과
		10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3,800	1개소	도정4개년	경제기업정책과
		11	청년 창업농 성공경영 원스톱 서비스	100	1사업	경발연제안	농업기술원
		12	청년농업인 경쟁력 향상	1,200	24개소	기존사업	농업기술원
		13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창업보육센터	150,745	100명	도정4개년	친환경농업과
14	청춘 푸드트럭 창업지원 사업	144	18팀	도정4개년	일자리정책과		
터	일 자 리	<b>일자리 분야 소계 (8)</b>		<b>125,415</b>	도정4개년 7, 기존 1		
		1	경남형 뉴딜일자리	26,008	1,401명	도정4개년	일자리정책과
		2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13,680	700명	도정4개년	사회적경제과
		3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13,500	4,130명	기존사업	일자리정책과
		4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9,250	2,750명	도정4개년	일자리정책과
		5	청년일자리 플랫폼 운영	3,000	1개소	도정4개년	일자리정책과
		6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29,242	1,193명	도정4개년	일자리정책과
		7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 지원	2,400	100명	도정4개년	농업정책과
8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28,335	1,180명	도정4개년	일자리정책과		
이 력 개 발	능 력 개 발	<b>능력개발 분야 소계 (7)</b>		<b>34,544</b>	도정4개년 2, 기존 5		
		1	청년EG(취업 가이드) 사업	2,045	2,100명	기존사업	일자리정책과
		2	고졸(예정)자 취업 특화과정	1,950	450명	기존사업	일자리정책과
		3	청년취업 멘토링 콘서트	210	7,500명	기존사업	일자리정책과
		4	경남형 포트랙 사업 확대 추진	6,395	1,100명	도정4개년	일자리정책과
		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19,970	1,395명	기존사업	일자리정책과
		6	지역인재 육성 사업	1,500	40개과정	기존사업	교육정책과
7	지능형 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	2,474	196명	도정4개년	전략산업과		
삶 터	생 활 안	<b>삶터 부분 소계 (17)</b>		<b>254,455</b>	도정4개년 3, 청년 3, 경발연 3, 부서 3, 기존 5		
		<b>생활·안정 분야 소계 (11)</b>		<b>92,935</b>	도정4개년 1, 청년 3, 경발연 2, 부서 2, 기존 3		
		1	청년 임차보조금 이차 지원사업	3,370	3,743명	경발연제안	사회혁신추진단
		2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670	900명	부서 발굴	사회혁신추진단
3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40,000	20,000명	부서 발굴	일자리정책과		

구분	분야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구분	담당부서	
정	4	경남 대학생 기숙사 지원	15,450	3,740명	기존사업	교육정책과	
	5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525	6,000명	기존사업	교육정책과	
	6	서민자녀 대학 입학생 장학금 지원	2,550	850명	기존사업	교육정책과	
	7	청년 갭이어	청년센터사업	120명	청년 제안	사회혁신추진단	
	8	저임금 프리랜서 청년 씨앗 통장	1,440	1,200명	청년 제안	사회혁신추진단	
	9	경남상생 공제사업	18,240	3,000명	경발연제안	알자리정책과	
	10	경남청년 내일채움 공제	10,225	9,863명	도정4개년	알자리정책과	
	11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465	9,000명	청년 제안	사회혁신추진단	
	<b>결혼·여성 분야 소계 (4)</b>			<b>161,395</b>	<b>도정4개년 1, 경발연 1, 기존 2</b>		
	1	작은 결혼식	비예산	60회	기존사업	여성가족정책관	
	2	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 및 지원	비예산	2,822세대	도정4개년	건축주택과	
3	청년 여성 생애주기별 지원	161,395	40회	경발연제안	여성가족정책관 (서울특별시여성정책관)		
4	일가정 양립 시범기업 지정 확산	비예산	22회	기존사업	여성가족정책관		
권리보호	<b>권리보호 분야 소계 (2)</b>			<b>125</b>	<b>도정4개년 1, 부서 1</b>		
	1	청소년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	100	5,000명	도정4개년	노동정책과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실태조사	25	2,500명	부서 발굴	노동정책과	
늘 이 터	<b>늘 이 터 부 분 소 계 (17)</b>			<b>16,068</b>	<b>도정4개년 6, 청년 8, 경발연 2, 기존 1</b>		
	<b>문화 분야 소계 (7)</b>			<b>9,728</b>	<b>도정4개년 3, 청년 1, 경발연 2, 기존 1</b>		
	문 화	1	청년 버스킹 공간 및 청년문화거리 조성	400	8개소	경발연 제안	문화예술과
		2	청년 예술인 육성	500	50명	경발연 제안	문화예술과
		3	경남도립미술관 인턴교육	433	5명	기존사업	도립미술관
		4	청년 K-Star 밀양 연극 아카데미	5,875	160명	도정4개년	문화예술과
		5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	1,200	25명	도정4개년	문화예술과
		6	청년 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120	40명	청년 제안	문화예술과
		7	청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1,200	50명	도정4개년	문화예술과
	<b>참여 분야 소계 (6)</b>			<b>6,340</b>	<b>도정4개년 2, 청년 4</b>		
	참 여	1	청년 활동 공간 지원사업	청년센터사업	65개소	청년 제안	사회혁신추진단
		2	경상남도 위원회 청년 할당제	20	15%	청년 제안	사회혁신추진단
		3	경상남도 청년사랑방	시군거점공간 조성사업 연계	2개소	청년 제안	사회혁신추진단
		4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청년센터사업	450팀	청년 제안	사회혁신추진단
		5	경상남도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4,320	1개소	도정4개년	사회혁신추진단
		6	시·군 청년터 조성	2,000	4개소	도정4개년	사회혁신추진단
	<b>혁신 분야 소계 (4)</b>			<b>-</b>	<b>도정4개년 1, 청년 3</b>		
혁 신	1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및 채용비리 예방	비예산	5%	도정4개년	예산담당관	
	2	청년 오프라인 홍보 플랫폼	청년센터사업	40대	청년 제안	사회혁신추진단	
	3	청년정책 전문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청년센터사업	4식	청년 제안	사회혁신추진단	
	4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	청년센터사업	45팀	청년 제안	사회혁신추진단	

출처: 경상남도, 2020.

## 2. 김해시 청년 정책(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가. 2022년 청년정책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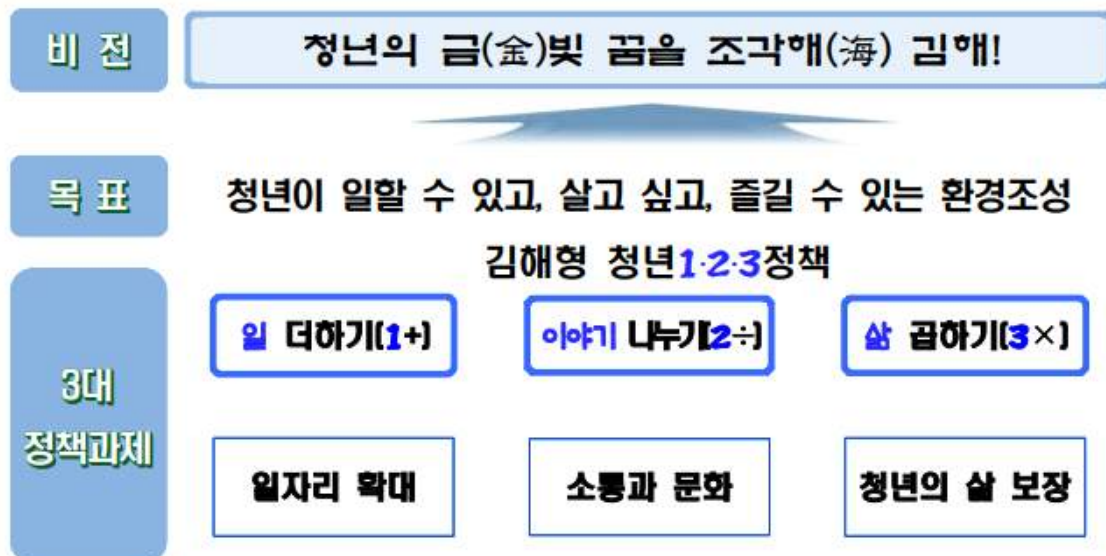
#### 1) 추진방향

- 고용위주 청년정책⇒ 주거, 교육,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는 정책
- 청년 삶의 보장과 청년문화 활성화⇒ 지역정착과 자립기반 확립
-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청년정책의 주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출처: 김해시, 2022.

#### 2)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림 2-4> 김해시 청년 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출처: 김해시, 2022.

#### 3) 세부추진계획

<표 2-6> 세부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사업수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63	44,184	18,362	5,293	18,444	2,086	
일자리 확대	32	10,001	4,028	927	5,027	20	
소통, 문화	17	29,899	13,017	3,565	11,317	2,000	
청년 삶 보장	14	4,285	1,317	801	2,101	66	

출처: 김해시, 2022.

나. 2022년 청년정책 세부추진계획

1) 2022년 사업계획(부서별)

<그림 2-5> 경상남도 청년 정책 2022년 사업계획(부서별)

(단위: 건, 백만원)

실·국·소	부서명	사 업 수	예산액	비고
<b>계</b>	<b>15</b>	<b>63</b>	<b>44,184</b>	
일자리경제국(28)	일 자 리 정 책 과	23	7,899	
	지 역 경 제 과	3	1,893	
	투 자 유 치 과	2	360	
시민복지국(6)	생 활 안 정 과	4	1,302	
	여 성 가 족 과	2	212	
도시관리국(6)	도 시 디 자 인 과	3	22,874	
	공 동 주 택 과	3	472	
농업기술센터(9)	농 업 정 책 과	6	1,084	
	농 업 기 술 과	3	61	
보건소(2)	지 역 보 건 과	1	706	
	서부건강지원센터	1	10	
문화관광사업소(8)	문 화 예 술 과	5	6,270	
	관 광 과	1	220	
	문 화 재 단	2	125	
인재육성사업소(4)	인 재 육 성 지 원 과	4	696	

출처: 김해시, 2022.

2) 2022년 사업계획(분야별)

<그림 2-6> 경상남도 청년 정책 2022년 사업계획(분야별)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연번	사업명	예산('22)	담당부서	페이지
<b>합계</b>		<b>63개 사업</b>		<b>44,184</b>	
<b>소계</b>		<b>32개 사업</b>		<b>10,001</b>	
일터하기 (일자리 확대)	1-1	미래新산업 청년 희망 챌린지사업	442	일 자 리 과	23
	1-2	청사초롱(청년사업가 초심으로 룬) 프로젝트	330		24
	1-3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571		25
	1-4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	1,058		26
	1-5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	613		27
	1-6	지역 인재·지역 살리기 사업	331		28
	1-7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457		29
	1-8	참 관장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713		30
	1-9	김해형 청년 1인 크리에이터 사업	50		31
	1-10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65		32
	1-11	사회적경제 창업BOOM-UP사업	61		33
	1-12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133		34
	1-13	채용박람회 개최	60		35
	1-14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형 "지역사회링크사업"	459		36
	1-1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900		37

분야별	연번	사업명	예산('22)	담당부서	페이지
일터하기 (일자리 확대)	1-16	김해형 일자리우수기업 지원 사업	147	일 자 리 정 책 과	38
	1-17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65		39
	1-18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1,800	지 경 제 역 과	40
	1-19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지원사업	28		41
	1-20	김해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	140	투 유 치 자 과	42
	1-21	김해 창업카페·메이커팩토리 통합운영사업	220		43
	1-22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208	여 가 족 과	44
	1-23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4		45
	1-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394	농 정 책 업 과	46
	1-25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 사업	26		47
	1-26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24		48
	1-27	김해 사회적 농장 복지코디네이터 지원사업	29		49
	1-28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10		50
	1-29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	601		51
	1-30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50	농 기 술 과	52
	1-31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	4		53
	1-32	청년 4-H 과제교육 지원	7		54

출처: 김해시, 2022.



분야별	연번	사업명	예산 (`22)	담당부서	페이지
소계		17개 사업		29,899	
이야기 나누기 (소통 문화)	2-1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16	일 자 리 정 책 과	57
	2-2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4		58
	2-3	김해청년다움(청년센터) 운영	200		59
	2-4	청년의 날 "김해청년 Wonderful Day!" 개최	10		60
	2-5	청년아트푸드트레인 사업	100		61
	2-6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420	도 시 디 자 인 과	62
	2-7	삼방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9,454		63
	2-8	진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7,000		64
	2-9	경남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운영	1,098	문 예 술 화 과	65
	2-10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3,000		66
	2-11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	1,272		67
	2-12	경남음악창작소 운영	500		68
	2-13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400		69
	2-14	김해한옥체험관 청년허브 조성 (청년공작소)	220	관 광 과	70
	2-15	영 아티스트 국제레지던시	125	김 해 문 화 재 단	71
	2-16	지역예술인지원 비대면 콘텐츠제작시설, 장비지원 사업	-		72
	2-17	김해시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개최	80	인 재 육 성 지 원 과	73

출처: 김해시, 2022.

분야별	연번	사업명	예산('22)	담당부서	페이지
소 계		14개 사업		4,285	
삶 굿하기 (청년 삶 보 장)	3 - 1	김해형 청년카드 사업	957	일 자 리 정 책 과	77
	3 - 2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22		78
	3 - 3	자활근로 사업을 통한 청년 자립지원사업	439	생 안 정 활 과	79
	3 - 4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	212		80
	3 - 5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89		81
	3 - 6	청년저축계좌사업	562		82
	3 - 7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450	공 주 택 동 과	83
	3 - 8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14		84
	3 - 9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8		85
	3-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06	지 보 건 역 과	86
	3-11	지역인재양성 사업성적우수 대학생 지원	250	인 재 육 성 지 원 과	87
	3-12	지역학교 입학-기업연계취업 장학사업	366		88
	3-13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상생협력 소통협의체 운영	-		89
	3-14	일동맘, 건강맘 임신부 비대면건강교실	10	서 부 건 강 지 원 센 터	90

출처: 김해시, 2022.

## 제2절

## 청년 일반 현황

### 1. 우리나라 연령별 청년 인구

2022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청년 인구(15~39세)는 15,377,936명으로 전체 인구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 청년 인구는 15~19세, 15.3%, 20~24세, 19.1%, 25~29세, 22.6%, 30~34세, 21.6%, 35~39세, 21.4%를 차지하고 있음.

2022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청년 인구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48.6%가 거주하고 있으며 김해시가 포함된 경상남도에는 5.6%의 청년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우리나라 연령별 청년 인구

(단위: 명)

구분	년도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15~39세					
전국		15,377,936	2,345,244	2,941,841	3,475,340	3,317,257	3,298,254
서울특별시		<b>3,201,907</b>	<b>386,616</b>	<b>578,374</b>	<b>811,109</b>	<b>758,697</b>	<b>667,111</b>
부산광역시		923,547	131,722	182,419	212,979	200,105	196,322
대구광역시		684,635	110,815	140,917	153,446	141,065	138,392
인천광역시		917,201	135,413	167,440	209,086	205,370	199,892
광주광역시		452,720	76,684	96,222	102,397	87,822	89,595
대전광역시		463,615	71,737	94,883	109,004	96,636	91,355
울산광역시		322,447	53,603	59,756	69,453	68,298	71,337
세종특별자치시		120,907	21,445	17,737	20,642	27,853	33,230
경기도		<b>4,271,845</b>	<b>652,254</b>	<b>793,049</b>	<b>944,242</b>	<b>934,442</b>	<b>947,858</b>
강원도		398,003	67,444	84,349	85,845	79,567	80,798
충청북도		448,288	72,546	87,492	100,818	92,559	94,873
충청남도		583,786	99,212	111,377	119,762	121,178	132,257
전라북도		459,873	85,084	100,726	97,558	85,453	91,052
전라남도		438,922	80,690	93,288	92,682	81,657	90,605
경상북도		639,675	109,987	128,660	132,660	128,460	139,908
경상남도		<b>859,112</b>	<b>155,798</b>	<b>167,946</b>	<b>173,143</b>	<b>170,227</b>	<b>191,998</b>
제주특별자치도		191,453	34,194	37,206	40,514	37,868	41,671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12월말 기준.

## 2. 우리나라 청년 인구 추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청년 인구는 1,521,785명(9.9%p) 감소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감소하였음. 특히 수도권에 비해 경상남도의 청년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

〈표 2-8〉 우리나라 청년 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16,899,721	16,540,432	16,135,017	15,724,478	15,377,936
서울특별시	3,473,315	3,415,596	3,345,731	3,249,813	3,201,907
부산광역시	1,065,107	1,026,839	991,207	953,657	923,547
대구광역시	789,132	760,238	735,110	705,236	684,635
인천광역시	1,002,169	979,206	947,351	927,257	917,201
광주광역시	502,206	490,304	477,280	465,044	452,720
대전광역시	511,326	496,284	483,092	471,546	463,615
울산광역시	386,014	370,674	352,717	335,618	322,447
<b>세종특별자치시</b>	<b>108,737</b>	<b>115,520</b>	<b>117,303</b>	<b>120,031</b>	<b>120,907</b>
경기도	4,439,384	4,408,771	4,382,543	4,346,251	4,271,845
강원도	442,581	430,994	418,996	406,731	398,003
충청북도	494,122	483,186	470,341	457,603	448,288
충청남도	651,355	633,887	613,170	595,689	583,786
전라북도	531,789	511,715	492,302	475,198	459,873
전라남도	514,851	496,597	473,952	454,047	438,922
경상북도	755,890	729,156	692,100	666,616	639,675
<b>경상남도</b>	<b>1,023,125</b>	<b>986,956</b>	<b>941,352</b>	<b>898,174</b>	<b>859,112</b>
제주특별자치도	208,618	204,509	200,470	195,967	191,453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12월말 기준.

### 3. 경상남도 연령별 청년 인구

2022년 12월말 현재 경상남도 청년 인구(15~39세)는 859,112명으로 전체 인구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 청년 인구는 15~19세, 18.1%, 20~24세, 19.5%, 25~29세, 20.2%, 30~34세, 19.8%, 35~39세, 22.3%를 차지하고 있음.

2022년 12월말 현재 경상남도 청년 인구는 창원시에 33.9%가 거주하고 있으며 김해시가 두 번째로 많은 18.3%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 경상남도 연령별 청년 인구

(단위: 명)

구분 \ 년도	전체 15~39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경상남도	859,112	155,798	167,946	173,143	170,227	191,998
창원시 의창구	62,415	9,318	11,960	14,085	13,339	13,713
창원시 성산구	81,563	12,890	15,540	18,715	18,024	16,394
창원시 마산합포구	44,922	6,761	8,845	9,108	9,436	10,772
창원시 마산회원구	47,631	8,827	9,437	10,131	9,325	9,911
창원시 진해구	54,323	10,108	9,632	10,304	11,109	13,170
진주시	99,135	17,036	21,024	21,441	19,416	20,218
통영시	26,740	5,887	5,267	4,563	4,677	6,346
사천시	25,337	4,815	4,852	5,013	5,011	5,646
<b>김해시</b>	<b>157,129</b>	<b>29,839</b>	<b>31,770</b>	<b>31,510</b>	<b>30,480</b>	<b>33,530</b>
밀양시	20,032	3,811	4,105	4,044	3,729	4,343
거제시	63,157	12,858	11,339	9,792	11,259	17,909
양산시	98,576	16,585	17,387	19,325	21,102	24,177
의령군	3,913	727	798	802	776	810
함안군	12,094	2,784	2,393	2,266	2,030	2,621
창녕군	10,159	1,985	1,947	1,949	1,994	2,284
고성군	8,883	2,102	1,894	1,683	1,379	1,825
남해군	6,453	1,397	1,547	1,245	1,038	1,226
동군	6,402	1,326	1,479	1,236	1,140	1,221
산청군	4,982	1,059	1,117	970	879	957
함양군	6,358	1,457	1,377	1,242	1,068	1,214
거창군	13,024	3,084	2,926	2,465	2,022	2,527
합천군	5,884	1,142	1,310	1,254	994	1,184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12월말 기준.

#### 4. 경상남도 청년 인구 추이

최근 5년간 경상남도 청년 인구는 164,013명(19.1%p) 감소하였고 경상남도의 모든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감소하였음. 김해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청년 인구가 19,376명(12.3%p) 감소하였음.

〈표 2-10〉 경상남도 청년 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상남도	1,023,125	986,956	941,352	898,174	859,112
창원시	344,063	329,561	314,819	303,429	290,854
창원시 의창구	85,320	84,880	83,422	65,486	62,415
창원시 성산구	83,513	78,732	74,014	84,377	81,563
창원시 마산합포구	52,369	49,356	46,344	46,999	44,922
창원시 마산회원구	60,521	56,363	53,621	50,239	47,631
창원시 진해구	62,340	60,230	57,418	56,328	54,323
진주시	108,604	106,853	104,707	102,346	99,135
통영시	36,526	34,138	31,168	28,599	26,740
사천시	30,960	29,125	27,589	26,197	25,337
<b>김해시</b>	<b>176,505</b>	<b>175,728</b>	<b>169,546</b>	<b>162,386</b>	<b>157,129</b>
밀양시	24,726	23,307	22,213	20,783	20,032
거제시	84,190	79,606	74,361	68,365	63,157
양산시	114,388	111,181	106,815	102,911	98,576
의령군	5,324	4,997	4,656	4,216	3,913
함안군	16,480	15,399	14,058	12,871	12,094
창녕군	14,230	13,239	12,247	11,208	10,159
고성군	11,516	10,801	10,007	9,208	8,883
남해군	8,085	7,922	7,420	6,838	6,453
동군	9,530	8,762	7,760	6,917	6,402
산청군	6,667	6,179	5,686	5,249	4,982
함양군	8,148	7,803	7,290	6,796	6,358
거창군	15,062	14,716	14,095	13,584	13,024
합천군	8,121	7,639	6,915	6,271	5,884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12월말 기준.

#### 4. 김해시 연령별 청년 인구 추이

2022년 12월말 현재 김해시 전체 인구는 535,129명으로 최근 5년간 1,457명 증가하였으나 청년 인구는 157,129명으로 최근 5년간 19,376명 감소하였고 2022년 12월말 현재 청년 인구 비율은 29.3%로 최근 5년간 3.8%p 감소하였음.

연령대별 청년 인구는 35~39세(33,530명), 20~24세(31,770명), 25~29세(31,510명), 30~34세(30,480명), 15~19세(29,83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25~34세 청년 인구를 제외한 연령대의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2-11> 김해시 연령별 청년 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년도	김해시 인구	청년 인구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청년 인구 비율
2018년	533,672	176,505	35,157	37,599	30,771	29,221	43,757	33.1
2019년	542,455	175,728	33,411	36,983	32,411	30,048	42,845	32.4
2020년	542,338	169,546	30,881	36,136	32,975	29,539	40,015	31.3
2021년	537,673	162,386	29,580	34,263	32,321	29,694	36,528	30.2
<b>2022년</b>	<b>535,129</b>	<b>157,129</b>	<b>29,839</b>	<b>31,770</b>	<b>31,510</b>	<b>30,480</b>	<b>33,530</b>	<b>29.3</b>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12월말 기준.

#### 5. 김해시 읍면동별 청년 인구 추이

2022년 12월말 현재 김해시 읍·면·동별 청년 인구는 주촌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청년 인구는 ①북부동이 가장 많았고 그 외 ②내외동, ③장유3동, ④장유1동, ⑤진영읍, ⑥활천동, ⑦장유2동, ⑧삼안동, ⑨주촌면, ⑩부원동, ⑪동상동, ⑫칠산서부동, ⑬회현동, ⑭불암동, ⑮진례면, ⑯한림면, ⑰대동면, ⑱생림면, ⑲상동면 순으로 나타남.

〈표 2-12〉 김해시 읍면동별 청년 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76,505	175,728	169,546	162,386
진영읍		17,967	17,867	16,948	16,023	15,123
주촌면		2,498	6,470	6,863	6,595	6,311
진례면		1,681	1,430	1,331	1,188	1,089
한림면		1,808	1,592	1,381	1,217	1,069
생림면		770	703	653	612	534
상동면		756	681	602	556	527
대동면		1,304	1,162	982	789	719
동상동		3,515	3,221	3,000	2,858	2,626
회현동		3,255	2,945	2,653	2,423	2,265
부원동		3,118	3,224	3,033	2,893	2,653
내외동		28,042	26,436	25,129	24,263	23,588
<b>북부동</b>		<b>28,274</b>	<b>26,735</b>	<b>25,919</b>	<b>24,868</b>	<b>25,320</b>
칠산서부동		3,004	2,741	2,627	2,508	2,378
활천동		14,964	13,636	12,671	11,997	11,267
삼안동		12,684	11,505	10,642	10,048	9,573
불암동		2,558	2,412	2,225	2,094	1,934
장유1동		18,658	18,314	17,784	17,434	16,891
장유2동		13,298	12,503	11,740	11,248	10,784
장유3동		18,351	22,151	23,363	22,772	22,478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12월말 기준.



## 6. 김해시 성·연령·읍면동별 청년 인구

2022년 12월말 현재 김해시 청년 인구는 157,129명으로 남성 83,674명 (50.6%), 여성 73,455명(49.4%)으로 나타났고 장유1동 및 장유3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남성 청년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3〉 김해시 성·연령·읍면동별 청년 인구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성비
	명	(%)	명	(%)	명	(%)	
<b>김해시 인구</b>	<b>535,129</b>		<b>270,652</b>	<b>(50.6)</b>	<b>264,477</b>	<b>(49.4)</b>	<b>(1.02)</b>
청년 인구	157,129	(100.0)	83,674	(53.3)	73,455	(46.7)	(1.14)
15~19세	29,839	(19.0)	15,576	(18.6)	14,263	(19.4)	(1.09)
20~24세	31,770	(20.2)	17,606	(21.0)	14,164	(19.3)	(1.24)
25~29세	31,510	(20.1)	17,135	(20.5)	14,375	(19.6)	(1.19)
30~34세	30,480	(19.4)	16,162	(19.3)	14,318	(19.5)	(1.13)
35~39세	33,530	(21.3)	17,195	(20.5)	16,335	(22.2)	(1.05)
진영읍	55,212	(10.3)	28,391	(10.5)	26,821	(10.1)	(1.06)
주촌면	18,986	(3.5)	9,736	(3.6)	9,250	(3.5)	(1.05)
진례면	6,127	(1.1)	3,370	(1.2)	2,757	(1.0)	(1.22)
한림면	7,002	(1.3)	3,831	(1.4)	3,171	(1.2)	(1.21)
생림면	3,669	(0.7)	1,961	(0.7)	1,708	(0.6)	(1.15)
상동면	3,110	(0.6)	1,721	(0.6)	1,389	(0.5)	(1.24)
대동면	5,463	(1.0)	2,834	(1.0)	2,629	(1.0)	(1.08)
동상동	9,329	(1.7)	4,775	(1.8)	4,554	(1.7)	(1.05)
회현동	8,678	(1.6)	4,329	(1.6)	4,349	(1.6)	(1.00)
부원동	9,488	(1.8)	4,852	(1.8)	4,636	(1.8)	(1.05)
내외동	72,774	(13.6)	36,335	(13.4)	36,439	(13.8)	(1.00)
북부동	82,392	(15.4)	41,213	(15.2)	41,179	(15.6)	(1.00)
칠산서부동	9,245	(1.7)	4,916	(1.8)	4,329	(1.6)	(1.14)
활천동	38,857	(7.3)	19,799	(7.3)	19,058	(7.2)	(1.04)
삼안동	31,761	(5.9)	16,302	(6.0)	15,459	(5.8)	(1.05)
불암동	7,190	(1.3)	3,677	(1.4)	3,513	(1.3)	(1.05)
장유1동	55,943	(10.5)	27,839	(10.3)	28,104	(10.6)	(0.99)
장유2동	35,945	(6.7)	18,132	(6.7)	17,813	(6.7)	(1.02)
장유3동	73,958	(13.8)	36,639	(13.5)	37,319	(14.1)	(0.98)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인구, 2022. 12월말 기준.



### 제3장.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1절.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결과

제2절.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빈도분석 결과

제3절.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교차분석 결과

제4절.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영향요인분석 결과



## 제3장

#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분석결과

### 제1절

##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결과

### 1. 일반적 사항

김해시 청년 당사자 690명의 일반적 사항은 <표 3-1>과 같음. 먼저 **성별은 여성이 415명(60.1%)**으로 남성 275명(39.9%) 보다 많았음. **연령은 ‘20대’가 531명(77.0%)**으로 ‘30대’ 159명(23.0%) 보다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5.5세**로 나타났음. 가구원 수에서는 **‘2인 가구 이상’이 542명(78.6%)**으로 ‘1인 가구’ 148명(21.4%)으로 응답자 중 20대의 비율이 높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음.

교육수준은 ① **‘대학교 재학’이 361명(5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② ‘대학교 졸업’ 292명(42.3%), ③ ‘고졸 이하’ 28명(4.1%), ④ ‘대학원 이상’ 9명(1.3%) 순으로 나타났음. 취업유무는 **‘미취업’ 411명(59.6%)**, ‘취업’ 279명(40.4%)으로 미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결혼상태는 **‘미혼’ 601명(87.1%)**, ‘기혼’ 89명(12.9%)으로 미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녀유무는 **‘없음’ 616명(89.3%)**, ‘있음’ 74명(10.7%)으로 자녀가 없는 청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의 경우 **관내 거주 청년이 529명(76.7%)**, **관외 거주 청년이 161명(23.3%)**으로 관내 거주 청년이 더 많았으며, 관내의 경우 ①**북부동이 141명(20.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②**내외동 82명(11.9%)**, ③**삼안동 57명(8.3%)**, ④**장유1동 40명(5.8%)**, ⑤**장유3동 35명(5.1%)**, ⑥**활천동 30명(4.3%)**, ⑦**주촌면 26명(3.8%)**, ⑧**부원동 21명(3.0%)**, ⑨**장유2동 19명(2.8%)**, ⑩**회현동 14명(2.0%)**, ⑪**동상동 및 한림면 각각 12명(1.7%)**, ⑫**칠산서부동 11명(1.6%)**, ⑬**불암동 10명(1.4%)**, ⑭**진영읍 8명(1.2%)**, ⑮**대동면 4명(0.6%)**, ⑯**상동면 및 진례면 각각 3명(0.4%)**, ⑰**생림면 1명(0.1%)** 순으로 나타났음. 관내의 경우 지역 균등배분을 실시하였으나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 읍면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응답자 수가 적었음. 관외 거주 청년의 경우 부산, 창원, 양산 지역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많았음.

〈표 3-1〉 일반적 사항

(단위: 명, %)

구분(N=690)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75	39.9	
	여성	<b>415</b>	<b>60.1</b>	
연령 (평균=25.5세)	20대	<b>531</b>	<b>77.0</b>	
	30대	159	23.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8	21.4	
	2인 가구 이상	<b>542</b>	<b>78.6</b>	
교육수준	고졸 이하	28	4.1	
	대학교 재학	<b>361</b>	<b>52.3</b>	
	대학교 졸업	292	42.3	
	대학원 이상	9	1.3	
취업유무	취업	279	40.4	
	미취업	<b>411</b>	<b>59.6</b>	
결혼상태	기혼	89	12.9	
	미혼	<b>601</b>	<b>87.1</b>	
자녀유무	있음	74	10.7	
	없음	<b>616</b>	<b>89.3</b>	
거주지역	김해시	삼안동	57	8.3
		불암동	10	1.4
		활천동	30	4.3
		동상동	12	1.7
		부원동	21	3.0
		회현동	14	2.0
		내외동	82	11.9
		<b>북부동</b>	<b>141</b>	<b>20.4</b>
		주촌면	26	3.8
		장유1동	40	5.8
		장유2동	19	2.8
		장유3동	35	5.1
		칠산서부동	11	1.6
		상동면	3	0.4
		대동면	4	0.6
		생림면	1	0.1
		한림면	12	1.7
		진례면	3	0.4
		진영읍	8	1.2
	그 외	기타	<b>161</b>	<b>23.3</b>

## 제2절

##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빈도분석 결과

### 1. 청년 자각

#### 가. 청년 인식 정도

청년 인식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3-2>와 같음. ‘청년이라고 생각함’ 570명(82.6%),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65명(9.4%), ‘생각해 본 적 없음’ 55명(8.0%)으로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청년 인식 정도

(단위: 명, %)

구 분 (N=690)	청년이라고 생각함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생각해 본 적 없음
빈도/백분율	570(82.6)	65(9.4)	55(8.0)

#### 나. 청년의 범위(사회적 역할 및 포지션)

청년의 범위(사회적 역할 및 포지션)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3-3>과 같음. 청년의 시작 시기는 대학교 257명(3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전 227명(33.5%), 대학 졸업 후 취업 전 71명(10.5%), 고등학교 69명(10.2%), 중학교 37명(5.5%), 결혼 전 13명(1.9%), 은퇴 전 3명(0.4%), 출산 전 1명(0.1%)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종료 시기는 결혼 291명(4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출산 126명(19.5%), 취업 106명(16.4%), 은퇴 95명(14.7%), 대학교 졸업 20명(3.1%), 고등학교 졸업 6명(0.9%), 중학교 졸업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시작 시기와 종료 시기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전에서 결혼하는 시기까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표 3-3〉 청년의 범위

(단위: 명, %)

시작 시기(N=678)		종료 시기(N=645)	
구 분	빈도/백분율	구 분	빈도/백분율
중학교	37(5.5)	중학교 졸업	1(0.2)
고등학교	69(10.2)	고등학교 졸업	6(0.9)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전	227(33.5)	대학교 졸업	20(3.1)
<b>대학교</b>	<b>257(37.9)</b>	취업	106(16.4)
대학 졸업 후 취업 전	71(10.5)	<b>결혼</b>	<b>291(45.1)</b>
결혼 전	13(1.9)	출산	126(19.5)
출산 전	1(0.1)	은퇴	95(14.7)
은퇴 전	3(0.4)	-	

다. 청년이 생각하는 청년의 시작 나이와 종료 나이

청년이 생각하는 청년의 시작 나이와 종료 나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3-4〉와 같음. 청년의 시작 나이의 평균은 19.7세로 20~24세가 459명(6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19세 이하 192명(27.8%), 25~29세 35명(5.1%), 30대 4명(0.6%) 순으로 나타났음.

청년의 종료 나이의 평균은 37.6세로 30대가 409명(5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40대 150명(21.8%), 50세 이상 65명(9.4%), 25~29세 59명(8.6%), 20~24세 5명(0.7%) 순으로 나타났음.

〈표 3-4〉 청년의 시작 나이와 종료 나이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						평균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대	40대	50세 이상	
시작 나이 (N=690)	192(27.8)	<b>459(66.5)</b>	35(5.1)	4(0.6)	0(0.0)	0(0.0)	<b>19.7</b>
종료 나이 (N=688)	0(0.0)	5(0.7)	59(8.6)	<b>409(59.4)</b>	150(21.8)	65(9.4)	<b>37.6</b>



#### 라. 청년을 설명하는 단어별 동의 정도

청년을 설명하는 단어별 동의 정도는 <표 3-5>와 같음. 먼저 ‘열정적’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이 277명(4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매우 동의함’ 236명(34.2%), ‘보통이다’ 137명(19.9%), ‘동의하지 않음’ 31명(4.5%), ‘전혀 동의하지 않음’ 9명(1.3%)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행복’에 대한 동의 정도는 ‘보통이다’ 가 255명(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동의함’ 157명(22.8%), ‘동의하지 않음’ 138명(20.0%), ‘매우 동의함’ 101명(14.6%), ‘전혀 동의하지 않음’ 39명(5.7%)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현실적’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이 231명(3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197명(28.6%), ‘매우 동의함’ 164명(23.8%), ‘동의하지 않음’ 85명(12.3%),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명(1.9%)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능동적’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이 267명(3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보통이다’ 244명(35.4%), ‘매우 동의함’ 124명(18.0%), ‘동의하지 않음’ 42명(6.1%),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명(1.9%)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무기력’에 대한 동의 정도는 ‘보통이다’ 가 218명(3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동의하지 않음’ 214명(31.0%), ‘전혀 동의하지 않음’ 107명(15.5%), ‘동의함’ 105명(15.2%), ‘매우 동의함’ 46명(6.7%)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불행’에 대한 동의 정도는 ‘보통이다’ 가 231명(3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동의하지 않음’ 227명(32.9%), ‘전혀 동의하지 않음’ 114명(16.5%), ‘동의함’ 72명(10.4%), ‘매우 동의함’ 46명(6.7%)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이상적’에 대한 동의 정도는 ‘보통이다’ 가 252명(3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동의함’ 226명(32.8%), ‘매우 동의함’ 93명(13.5%), ‘동의하지 않음’ 89명(12.9%), ‘전혀 동의하지 않음’ 30명(4.3%)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수동적’에 대한 동의 정도는 ‘보통이다’ 가 296명(4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동의하지 않음’ 176명(25.5%), 109명(15.8%), ‘전혀 동의하지 않음’ 66명(9.6%), ‘매우 동의함’ 43명(6.2%) 순으로 나타났음.

청년을 설명하는 단어별 동의 정도의 순위는 5점 만점에 평균 ① ‘열정적’ 이 4.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③ ‘현실적’ 및 ‘능동적’

각각 3.65점, ④ ‘이상적’ 3.38점, ⑤ ‘행복’ 3.20점, ⑥ ‘수동적’ 2.84점, ⑦ ‘무기력’ 2.67점, ⑧ ‘**불행**’ 2.58점 순으로 나타나 청년을 열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별 동의 정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5〉 청년을 설명하는 단어별 동의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열정적	9(1.3)	31(4.5)	137(19.9)	<b>277(40.1)</b>	<b>236(34.2)</b>	<b>4.01</b>
행복	39(5.7)	138(20.0)	<b>255(37.0)</b>	<b>157(22.8)</b>	101(14.6)	3.20
현실적	13(1.9)	85(12.3)	<b>197(28.6)</b>	<b>231(33.5)</b>	164(23.8)	3.65
능동적	13(1.9)	42(6.1)	<b>244(35.4)</b>	<b>267(38.7)</b>	124(18.0)	3.65
무기력	107(15.5)	<b>214(31.0)</b>	<b>218(31.6)</b>	105(15.2)	46(6.7)	2.67
불행	114(16.5)	<b>227(32.9)</b>	<b>231(33.5)</b>	72(10.4)	46(6.7)	<b>2.58</b>
이상적	30(4.3)	89(12.9)	<b>252(36.5)</b>	<b>226(32.8)</b>	93(13.5)	3.38
수동적	66(9.6)	<b>176(25.5)</b>	<b>296(42.9)</b>	109(15.8)	43(6.2)	2.84

#### 마. 청년의 문제나 어려움 정도

청년의 문제나 어려움 정도는 〈표 3-6〉과 같음. 먼저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은 ‘**매우 어려움**’ 가 **348명(5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어려움’ 251명(36.4%), ‘보통이다’ 62명(9.0%), ‘어렵지 않음’ 23명(3.3%), ‘전혀 어렵지 않음’ 6명(0.9%)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보통이다**’ 가 **245명(3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어려움’ 210명(30.4%), ‘어렵지 않음’ 113명(16.4%), ‘매우 어려움’ 90명(13.0%), ‘전혀 어렵지 않음’ 32명(4.6%)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주거에 대한 어려움은 ‘**매**

우 어려움' 이 353명(5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어려움' 194명(28.1%), '보통이다' 109명(15.8%), '어렵지 않음' 27명(3.9%), '전혀 어렵지 않음' 7명(1.0%)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금융 및 부채에 대한 어려움은 '매우 어려움' 이 256명(3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어려움' 237명(34.3%), '보통이다' 152명(22.0%), '어렵지 않음' 34명(4.9%), '전혀 어렵지 않음' 11명(1.6%)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어려움은 '보통이다' 272명(3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어려움' 183명(26.5%), '어렵지 않음' 107명(15.5%), '매우 어려움' 99명(14.2%), '전혀 어렵지 않음' 30명(4.3%)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문화여가에 대한 어려움은 '보통이다' 가 216명(3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어렵지 않음' 174명(25.2%), '어려움' 119명(17.2%), '전혀 어렵지 않음' 109명(15.8%), 매우 어려움 72명(10.4%) 순으로 나타났음.

청년의 문제나 어려움 정도의 순위는 5점 만점에 평균 ①일자리에 대한 어려움이 4.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②주거에 대한 어려움 4.24점, ③금융 및 부채에 대한 어려움 4.00점, ⑤교육 및 사회참여에 대한 어려움 각각 3.31점, ⑥문화여가에 대한 어려움 2.81점 순으로 나타났음.

<표 3-6> 청년의 문제나 어려움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보통 이다	어려움	매우 어려움	평균
일자리	6(0.9)	23(3.3)	62(9.0)	251(36.4)	348(50.4)	4.32
교육	32(4.6)	113(16.4)	245(35.5)	210(30.4)	90(13.0)	3.31
주거	7(1.0)	27(3.9)	109(15.8)	194(28.1)	353(51.2)	4.24
금융/부채	11(1.6)	34(4.9)	152(22.0)	237(34.3)	256(37.1)	4.00
사회참여	30(4.3)	107(15.5)	272(39.4)	183(26.5)	99(14.2)	3.31
문화여가	109(15.8)	174(25.2)	216(31.3)	119(17.2)	72(10.4)	2.81

## 2. 청년 인식

### 가.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에 대한 생각은 <표 3-7>과 같음.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가 245명(3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모르겠다’ 196명(28.4%),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125명(18.1%), ‘결혼은 해야 한다’ 124명(18.0%) 순으로 나타났음.

<표 3-7> 결혼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결혼은 해야 한다	124(18.0)
<b>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b>	<b>245(35.5)</b>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125(18.1)
모르겠다	196(28.4)

### 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표 3-8>과 같음. 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가 50명(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② ‘주거·생계비 등 결혼을 위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45명(36.0%), ③ ‘시댁 또는 처가와의 관계 부담 때문에’ 9명(7.6%), ⑤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기타’ 각각 7명(6.0%), ⑥ ‘결혼보다는 동거가 낫다고 생각해서’ 4명(3.4%), ⑦ ‘가사노동 부담 때문에’ 1명(1.0%) 순으로 나타나 자유로운 삶이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8〉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구 분	빈도/백분율(N=125)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50(40.0)
주거·생계비 등 결혼을 위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45(36.0)
가사노동 부담 때문에	1(1.0)
시택 또는 처가와와의 관계 부담 때문에	9(7.6)
결혼보다는 동거가 낫다고 생각해서	4(3.4)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7(6.0)
기타	7(6.0)

#### 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 3-9〉와 같음. 1순위부터 2순위까지에 대한 응답 중에서 ① ‘**급여, 복리후생 등 경제적 보상**’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 ‘적성과 흥미’, ③ ‘고용 안정성’, ④ ‘워라벨(Work-life balance) 가능성’, ⑤ ‘회사의 전망과 개인의 성장 가능성’, ⑥ ‘일의 가치’, ⑦ ‘산재위험 등 근무환경’, ⑧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 ⑨ ‘조직문화’, ⑩ ‘기타’ 순으로 나타났음.

〈표 3-9〉 직업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		합계 (순위)
	1순위 (N=690)	2순위 (N=685)	
적성과 흥미	217(31.4)	105(15.2)	539 (2)
<b>급여, 복리후생 등 경제적 보상</b>	<b>249(36.1)</b>	<b>200(29.0)</b>	<b>698 (1)</b>
고용 안정성	96(13.9)	97(14.1)	289 (3)
워라벨(Work-life balance) 가능성	69(10.0)	138(20.0)	276 (4)
산재위험 등 근무환경	10(1.4)	22(3.2)	42 (7)
회사의 전망과 개인의 성장 가능성	17(2.5)	57(8.3)	114 (5)
일의 가치	20(2.9)	33(4.8)	73 (6)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	7(1.0)	19(2.8)	33 (8)
조직문화	4(0.6)	14(2.0)	22 (9)
기타	1(0.1)	0(0.0)	2 (10)

주: 합계 점수는 각 순위별 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택인원의 합계를 구한 것임.

라. 앞으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

앞으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은 <표 3-10>과 같음. ①김해가 200명(2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부산 188명(27.2%), ③서울 및 수도권 162명(23.5%), ④창원 80명(11.6%), ⑤기타 26명(3.8%), ⑥진주 12명(1.7%), ⑦양산 11명(1.6%), ⑧거제 4명(0.6%), ⑨밀양 3명(0.4%), ⑩함안, 남해, 거창, 합천 각각 1명(0.1%)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0> 앞으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

(단위: 명, %)

구 분(N=690)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빈도 / 백분율	80(11.6)	12(1.7)	0(0.0)	0(0.0)	<b>200(29.0)</b>	3(0.4)
구 분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빈도 / 백분율	4(0.6)	11(1.6)	0(0.0)	1(0.1)	0(0.0)	0(0.0)
구 분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빈도 / 백분율	1(0.1)	0(0.0)	0(0.0)	0(0.0)	1(0.1)	1(0.1)
구 분	서울 및 수도권		부산		기타	
빈도 / 백분율	162(23.5)		188(27.2)		26(3.8)	

마. 여건이 허락한다면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

여건이 허락한다면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은 <표 3-11>과 같음. ‘그렇다’ 513명(74.3%), ‘아니다’ 177명(25.7%)으로 김해를 떠나고 싶은 청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1> 여건이 허락한다면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

(단위: 명, %)

구 분(N=690)	그렇다	아니다
빈도/백분율	<b>513(74.3)</b>	177(25.7)

바. 김해를 떠나고 싶은 이유

김해를 떠나고 싶은 이유는 <표 3-12>와 같음. 1순위부터 2순위까지에 대한 응답 중에서 ① ‘양질의 일자리, 소득 등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찾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 ‘더 나은 문화와 여가 생활을 향유하고 싶어서’, ③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④ ‘다양하고 질 높은 배움과 교육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⑥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맞는 주택이 많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거환경을 찾기 위해서’, ⑦ ‘기타’, ⑧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청년 정책을 제공하는 지역에서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서’, ⑨ ‘청년을 존중하는 탈권위적이고 개방적인 사회 환경을 찾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2> 김해를 떠나고 싶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		합계 (순위)
	1순위 (N=513)	2순위 (N=478)	
(경제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소득 등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찾기 위해서	265(51.7)	91(19.0)	621(1)
(문화와 여가) 더 나은 문화와 여가 생활을 향유하고 싶어서	124(24.2)	164(34.4)	412 (2)
(주거)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맞는 주택이 많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거환경을 찾기 위해서	14(2.7)	44(9.2)	72 (6)
(교육) 다양하고 질 높은 배움과 교육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16(3.2)	52(10.9)	84 (4)
(사회) 청년을 존중하는 탈권위적이고 개방적인 사회 환경을 찾기 위해서	9(1.7)	16(3.3)	34 (9)

구 분	빈도 / 백분율		합계 (순위)
	1순위 (N=513)	2순위 (N=478)	
(결혼)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22(4.3)	35(7.3)	79 (5)
(정책)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청년 정책을 제공하는 지역에서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서	11(2.1)	31(6.5)	53 (8)
(가족)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28(5.4)	34(7.1)	90 (2)
기타	24(4.7)	11(2.3)	59 (7)
해당사항없음	177	212	-

주: 합계 점수는 각 순위별 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택인원의 합계를 구한 것임.

#### 사. 김해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

김해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는 <표 3-13>과 같음. 1순위부터 2순위까지에 대한 응답 중에서 ① ‘지금 살고 있는 주거환경과 김해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여건에 만족하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가 두려워서(살던 곳이 익숙하기 때문에)’, ③ ‘김해의 문화, 여가 생활 수준에 만족하기 때문에’, ④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살고 싶어서’, ⑤ ‘김해의 사회 환경에 만족하기 때문에’, ⑥ ‘김해의 일자리와 소득수준 등 경제적 환경에 만족하기 때문에’, ⑦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⑧ ‘김해에서도 충분히 다양하고 질 높은 배움과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⑨ ‘기타’, ⑩ ‘김해가 제공하는 청년정책이 우수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3> 김해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		합계 (순위)
	1순위 (N=177)	2순위 (N=165)	
(경제와 일자리) 김해의 일자리와 소득수준 등 경제적 환경에 만족하기 때문에	6(3.4)	7(4.2)	19 (6)
(문화와 여가) 김해의 문화, 여가생활 수준에 만족하기 때문에	23(13.0)	16(9.7)	62 (3)
(주거) 지금 살고 있는 주거환경과 김해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여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b>58(32.8)</b>	36(21.9)	<b>152 (1)</b>
(교육) 김해에서도 충분히 다양하고 질 높은 배움과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5(2.8)	2(1.2)	12 (8)
(사회) 김해의 사회 환경에 만족하기 때문에	9(5.1)	21(12.7)	39 (5)
(결혼)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2(1.1)	12(7.2)	16 (7)
(정책) 김해가 제공하는 청년정책이 우수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1(0.6)	3(1.8)	5 (10)
(가족)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살고 싶어서	56(31.6)	23(13.9)	46 (4)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가 두려워서(살던 곳이 익숙하기 때문에)	13(7.3)	<b>42(25.6)</b>	68 (2)
기타	4(2.3)	3(1.8)	11 (9)
해당사항없음	513	525	-

주: 합계 점수는 각 순위별 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택인원의 합계를 구한 것임.

### 3. 청년 정책 인식

#### 가. 청년정책 분야 중요도

청년정책 분야 중요도는 <표 3-14>와 같음. 먼저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505명(73.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중요함’ 135명(19.6%), ‘보통’ 42명(6.1%), ‘중요하지 않음’ 6명(0.9%), ‘전혀 중요하지 않음’ 2명(0.3%)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교육기회 확대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387명(5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중요함’ 211명(30.6%), ‘보통’ 81명(11.7%), ‘중요하지 않음’ 10명(1.4%), ‘전혀 중요하지 않음’ 1명(0.1%)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주거 및 생활비 지원 등 생활안정’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472명(6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중요함’ 140명(20.3%), ‘보통’ 66명(9.6%), ‘중요하지 않음’ 10명(1.4%), ‘전혀 중요하지 않음’ 2명(0.3%)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결혼, 출산, 보육 등 가족지원’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438명(6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중요함’ 146명(21.2%), ‘보통’ 89명(12.9%), ‘전혀 중요하지 않음’ 11명(1.6%), ‘전혀 중요하지 않음’ 6명(0.9%)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귀농·귀촌 지원’에서는 ‘보통’이 247명(3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매우 중요함’ 179명(25.9%), ‘중요함’ 139명(20.1%), ‘중요하지 않음’ 92명(13.3%), ‘전혀 중요하지 않음’ 33명(4.8%)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문화·여가활동지원’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300명(4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요함’ 223명(32.3%), ‘보통’ 135명(19.6%), ‘중요하지 않음’ 23명(3.3%), ‘전혀 중요하지 않음’ 9명(1.3%)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자기개발 및 자기탐색 지원’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316명(4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중요함’ 224명(32.5%), ‘보통’ 124명(18.0%), ‘중요하지 않음’ 18명(2.6%), ‘전혀 중요하지 않음’ 8명(1.2%)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및 지원’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297명(4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중요함’ 210명(30.4%), ‘보통’ 160명(23.2%), ‘중요하지 않음’ 15명(2.2%), ‘전혀 중요하지 않음’ 8명(1.2%)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권리보호 등 청년 존중 문화 형성’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296명(42.9%)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중요함’ 207명(30.0%), ‘보통’ 166명(24.1%), ‘중요하지 않음’ 13명(1.9%), ‘전혀 중요하지 않음’ 8명(1.2%)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등 사회(혁신)활동 참여 지원’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270명(3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중요함’ 204명(29.6%), ‘보통’ 188명(27.2%), ‘중요하지 않음’ 16명(2.3%), ‘전혀 중요하지 않음’ 12명(1.7%) 순으로 나타났음.

청년정책 분야 중요도 순위는 5점 만점에 평균 ①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에 대한 중요도가 4.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주거 및 생활 지원 등 생활안정 중요도 4.55점, ③결혼, 출산, 보육 등 가족지원 4.45점, ④교육기회 확대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4.41점, ⑤자기개발 및 자기탐색 지원 4.19점, ⑥문화·여가활동지원 4.13점, ⑦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및 지원 4.12점, ⑧권리보호 등 청년 존중문화 형성 4.11점, ⑨귀농·귀촌 지원 3.49점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4> 청년정책 분야 중요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	2(0.3)	6(0.9)	42(6.1)	135(19.6)	505(73.2)	4.64
교육기회 확대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1(0.1)	10(1.4)	81(11.7)	211(30.6)	387(56.1)	4.41
주거 및 생활비 지원 등 생활안정	2(0.3)	10(1.4)	66(9.6)	140(20.3)	472(68.4)	4.55
결혼, 출산, 보육 등 가족 지원	6(0.9)	11(1.6)	89(12.9)	146(21.2)	438(63.5)	4.45
귀농·귀촌 지원	33(4.8)	92(13.3)	247(35.8)	139(20.1)	179(25.9)	3.49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문화·여가활동 지원	9(1.3)	23(3.3)	135(19.6)	223(32.3)	300(43.5)	4.13
자기개발 및 자기탐색 지원	8(1.2)	18(2.6)	124(18.0)	224(32.5)	316(45.8)	4.19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및 지원	8(1.2)	15(2.2)	160(23.2)	210(30.4)	297(43.0)	4.12
권리보호 등 청년 존중 문화 형성	8(1.2)	13(1.9)	166(24.1)	207(30.0)	296(42.9)	4.11
사회적경제 등 사회(혁신) 활동 참여 지원	12(1.7)	16(2.3)	188(27.2)	204(29.6)	270(39.1)	4.02

주: 합계 점수는 각 순위별 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택인원의 합계를 구한 것임.

## 나. 청년정책 분야 만족도

청년정책 분야 만족도는 <표 3-15>와 같음. 먼저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에서는 ‘보통’이 380명(5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만족하지 않음’ 128명(18.6%), ‘만족함’ 87명(12.6%), ‘전혀 만족하지 않음’ 57명(8.3%), ‘매우 만족함’ 38명(5.5%)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교육기회 확대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서는 ‘보통’이 396명(5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만족함’ 114명(16.5%), ‘만족하지 않음’ 96명(13.9%), ‘매우 만족함’ 44명(6.4%), ‘전혀 만족하지 않음’ 40명(5.8%)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주거 및 생활 지원 등 생활안정’에서는 ‘보통’이 352명(5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만족하지 않음’ 128명(18.6%), ‘만족함’ 101명(14.6%), ‘전혀 만족하지 않음’ 60명(8.7%), ‘매우 만족함’ 49명(7.1%)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결혼, 출산, 보육 등 가족지원’에서는 ‘보통’이 383명(5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만족하지 않음’ 130명(18.8%), ‘만족

함' 78명(11.3%), '전혀 만족하지 않음' 59명(8.6%), '매우 만족함' 40명(5.8%) 순으로 나타났음. '귀농·귀촌 지원'에서는 '보통'이 469명(6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이 각각 71명(10.3%), '전혀 만족하지 않음' 43명(6.2%), '매우 만족함' 36명(5.2%)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문화·여가활동지원'에서는 '보통'이 365명(5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만족함' 126명(18.3%), '만족하지 않음' 106명(15.4%), '매우 만족함' 57명(8.3%), '전혀 만족하지 않음' 36명(5.2%) 순으로 나타났음. '자기개발 및 자기탐색 지원'에서는 '보통'이 377명(5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만족하지 않음' 116명(16.8%), '만족함' 115명(16.7%), '매우 만족함' 46명(6.7%), '전혀 만족하지 않음' 36명(5.2%) 순으로 나타났음.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및 지원'에서는 '보통'이 422명(6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만족하지 않음' 93명(31.5%), '만족함' 86명(12.5%), '전혀 만족하지 않음' 53명(7.7%), '매우 만족함' 36명(5.2%)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권리보호 등 청년 존중문화 형성'에서는 '보통'이 416명(6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만족함' 96명(13.9%), '만족하지 않음' 88명(12.8%), '전혀 만족하지 않음' 52명(7.5%), '매우 만족함' 38명(5.5%) 순으로 나타났음. '사회적경제 등 사회(혁신)활동 참여 지원'에서는 '보통' 435명(6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만족하지 않음' 89명(12.9%), '만족함' 87명(12.6%), '전혀 만족하지 않음' 41명(5.9%), '매우 만족함' 38명(5.5%) 순으로 나타났음.

청년정책 분야 만족도 순위는 5점 만점에 평균 ①문화·여가활동 지원 만족도가 3.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교육기회 확대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만족도 3.04점, ③자기개발 및 자기탐색 지원 만족도 3.03점, ④사회적경제 등 사회(혁신)활동 참여 지원 만족도 2.99점, ⑤귀농·귀촌 지원 만족도 2.98점, ⑥권리보호 등 청년 존중 문화 형성 만족도 2.97점, ⑦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및 지원 만족도 2.94점, ⑧주거 및 생활비 지원 등 생활안정 만족도 2.93점, ⑨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 만족도 2.89점, ⑩결혼, 출산, 보육 등 가족지원 만족도 2.87점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5〉 청년정책 분야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평균
	전혀 만족 하지 않음	만족 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	57(8.3)	128(18.6)	380(55.1)	87(12.6)	38(5.5)	2.89
교육기회 확대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40(5.8)	96(13.9)	396(57.4)	114(16.5)	44(6.4)	3.04
주거 및 생활비 지원 등 생활안정	60(8.7)	128(18.6)	352(51.0)	101(14.6)	49(7.1)	2.93
결혼, 출산, 보육 등 가족 지원	59(8.6)	130(18.8)	383(55.5)	78(11.3)	40(5.8)	<b>2.87</b>
귀농·귀촌 지원	43(6.2)	71(10.3)	469(68.0)	71(10.3)	36(5.2)	2.98
문화·여가활동 지원	36(5.2)	106(15.4)	365(52.9)	126(18.3)	57(8.3)	<b>3.09</b>
자기개발 및 자기탐색 지 원	36(5.2)	116(16.8)	377(54.6)	115(16.7)	46(6.7)	3.03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및 지원	53(7.7)	93(13.5)	422(61.2)	86(12.5)	36(5.2)	2.94
권리보호 등 청년 존중 문 화 형성	52(7.5)	88(12.8)	416(60.3)	96(13.9)	38(5.5)	2.97
사회적경제 등 사회(혁신) 활동 참여 지원	41(5.9)	89(12.9)	435(63.0)	87(12.6)	38(5.5)	2.99

#### 다. 청년정책 분야 이용경험

청년정책 분야 이용경험은 <표 3-16>와 같음. ①문화·여가활동 지원 정책 이용경험이 19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교육기회 확대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③자기개발 및 자기탐색 지원 정책 이용경험 162명, ④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 정책 이용경험 154명, ⑤주거 및 생활비 지원 등 생활안정 정책 이용경험 117명, ⑥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및 지원 정책 이용경험 77명, ⑦사회적경제 등 사회(혁신)활동 참여 지원 정책 이용경험 69명, ⑧권리보호 등 청년 존중 문화 형성 정책 이용경험 62명, ⑨결혼, 출산, 보육 등 가족지원 정책 이용경험 60명, ⑩귀농·귀촌 정책 이용경험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6> 청년정책 분야 이용경험

(단위: 명, %)

구 분 (N=690)	빈도 / 백분율	
	이용경험	
	유	무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	154(22.3)	536(77.7)
교육기회 확대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172(24.9)	518(75.1)
주거 및 생활비 지원 등 생활안정	117(17.0)	573(83.0)
결혼, 출산, 보육 등 가족지원	60(8.7)	630(91.3)
귀농·귀촌 지원	25(3.6)	665(96.4)
문화·여가활동 지원	197(28.6)	493(71.4)
자기개발 및 자기탐색 지원	162(23.5)	528(76.5)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및 지원	77(11.2)	613(88.8)
권리보호 등 청년 존중 문화 형성	62(9.0)	628(91.0)
사회적경제 등 사회(혁신)활동 참여 지원	69(10.0)	621(90.0)

## 라.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지원 필요 정도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지원 필요 정도는 <표 3-17>과 같음. 먼저 일자리에서는 ‘매우 필요함’ 이 469명(6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필요함’ 165명(23.9%), ‘보통’ 45명(6.5%), ‘필요하지 않음’ 9명(1.3%), ‘전혀 필요하지 않음’ 2명(0.3%)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교육에서는 ‘매우 필요함’ 이 299명(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필요함’ 245명(35.5%), ‘보통’ 129명(18.7%), ‘필요하지 않음’ 12명(1.7%), ‘전혀 필요하지 않음’ 5명(0.7%)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주거에서는 ‘매우 필요함’ 이 420명(6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필요함’ 186명(27.0%), ‘보통’ 70명(10.1%), ‘필요하지 않음’ 11명(1.6%), ‘전혀 필요하지 않음’ 3명(0.4%)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금융/부채에서는 ‘매우 필요함’ 이 318명(4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필요함’ 207명(30.0%), ‘보통’ 130명(18.8%), ‘필요하지 않음’ 29명(4.2%), ‘전혀 필요하지 않음’ 6명(0.9%)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사회참여에서는 ‘매우 필요함’ 이 252명(3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필요함’ 224명(32.5%), ‘보통’ 177명(25.7%), ‘필요하지 않음’ 31명(4.5%), ‘전혀 필요하지 않음’ 6명(0.9%) 순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문화여가에서는 ‘매우 필요함’ 이 262명(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필요함’ 202명(29.3%), ‘보통’ 179명(25.9%), ‘필요하지 않음’ 40명(5.8%), ‘전혀 필요하지 않음’ 7명(1.0%) 순으로 나타났음.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지원 필요 정도 순위는 5점 만점에 평균 ①일자리가 4.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주거 4.46점, ③교육 4.19점, ④금융/부채 4.16점, ⑤사회참여 3.99점, ⑥문화여가 3.97점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7〉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지원 필요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일자리	2(0.3)	9(1.3)	45(6.5)	<b>165(23.9)</b>	<b>469(68.0)</b>	<b>4.58</b>
교육	5(0.7)	12(1.7)	129(18.7)	<b>245(35.5)</b>	<b>299(43.3)</b>	4.19
주거	3(0.4)	11(1.6)	70(10.1)	<b>186(27.0)</b>	<b>420(60.9)</b>	4.46
금융/부채	6(0.9)	29(4.2)	130(18.8)	<b>207(30.0)</b>	<b>318(46.1)</b>	4.16
사회참여	6(0.9)	31(4.5)	177(25.7)	<b>224(32.5)</b>	<b>252(36.5)</b>	3.99
문화여가	7(1.0)	40(5.8)	179(25.9)	<b>202(29.3)</b>	<b>262(38.0)</b>	<b>3.97</b>

마.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 본인의 노력(책임)정도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 본인의 노력(책임)정도는 〈표 3-18〉과 같음. 먼저 일자리에서는 ‘매우 필요함’ 이 440명(6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필요함’ 186명(27.0%), ‘보통’ 52명(7.5%), ‘필요하지 않음’ 9명(1.3%), ‘전혀 필요하지 않음’ 3명(0.4%) 순으로 나타났음. 교육에서는 ‘매우 필요함’ 이 352명(5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필요함’ 229명(33.2%), ‘보통’ 92명(13.3%), ‘필요하지 않음’ 14명(2.0%), ‘전혀 필요하지 않음’ 3명(0.4%) 순으로 나타났음. 주거에서는 ‘매우 필요함’ 이 350명(4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필요함’ 197명(28.6%), ‘보통’ 142명(20.6%), ‘필요하지 않음’ 29명(4.2%), ‘전혀 필요하지 않음’ 17명(2.5%) 순으로 나타났음. 금융/부채에서는 ‘매우 필요함’ 이 314명(4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필요함’ 230명(33.3%), ‘보통’ 113명(16.4%). ‘필요하지 않음’ 24명(3.5%), ‘전혀 필요하지 않음’ 9명(1.3%) 순으로 나타났음. **사회참여**에서는 ‘매우 필요함’ 이 310명(4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필요함’ 246명(35.7%), ‘보통’ 114명(16.5%), ‘필요하지 않음’ 13명(1.9%), ‘전혀 필요하지 않음’ 7명(1.0%) 순으로 나타났음. **문화여가**에서는 ‘매우 필요함’ 이 **286명(4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필요함’ 230명(33.3%), ‘보통’ 141명(20.4%), ‘필요하지 않음’ 25명(3.6%), ‘전혀 필요하지 않음’ 8명(1.2%) 순으로 나타났음.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 본인의 노력(책임)정도의 순위는 5점 만점에 평균 **일자리가 4.5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외 교육 4.32점, 사회참여 4.22점, 금융/부채 4.18점, 문화여가 4.10점, **주거 4.08점**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8>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 본인의 노력(책임)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일자리	3(0.4)	9(1.3)	52(7.5)	<b>186(27.0)</b>	<b>440(63.8)</b>	<b>4.52</b>
교육	3(0.4)	14(2.0)	92(13.3)	<b>229(33.2)</b>	<b>352(51.0)</b>	4.32
주거	17(2.5)	29(4.2)	142(20.6)	<b>197(28.6)</b>	<b>305(44.2)</b>	<b>4.08</b>
금융/부채	9(1.3)	24(3.5)	113(16.4)	<b>230(33.3)</b>	<b>314(45.5)</b>	4.18
사회참여	7(1.0)	13(1.9)	114(16.5)	<b>246(35.7)</b>	<b>310(44.9)</b>	4.22
문화여가	8(1.2)	25(3.6)	141(20.4)	<b>230(33.3)</b>	<b>286(41.4)</b>	4.10

#### 4. 청년 실태(경제)

##### 가. 월 지출액 중 지출 비중이 높은 순

월 지출액 중 지출 비중이 높은 순서는 <표 3-19>와 같음. 1순위부터 2순위까지에 대한 응답 중에서 ①식비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②주거비, ③문화여가비, ④교통비, ⑤대출이자 및 원금상환 비용, ⑥자기계발비, ⑦친목활동비, ⑧자녀양육비, ⑩통신비 및 기타, ⑪보건의료비, ⑫부모부양비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9> 월 지출액 중 지출 비중이 높은 순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		합계 (순위)
	1순위 (N=690)	2순위 (N=687)	
식비	412(59.7)	146(21.3)	970 (1)
주거비(전월세, 관리비 등)	80(11.6)	114(16.6)	274 (2)
자기계발비(학원수강 등)	30(4.3)	38(5.5)	98 (6)
교통비	26(3.8)	112(16.3)	164 (4)
통신비	5(0.7)	20(2.9)	30 (10)
문화여가비	46(6.7)	130(18.9)	222 (3)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비용	37(5.4)	40(5.8)	114 (5)
보건의료비	3(0.4)	13(1.9)	19 (11)
친목활동비	23(3.3)	46(6.7)	92 (7)
자녀양육비	15(2.2)	19(2.8)	49 (8)
부모부양비	1(0.1)	3(0.4)	5 (12)
기타	12(1.7)	6(0.9)	30 (10)

주: 합계 점수는 각 순위별 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택인원의 합계를 구한 것임.

## 나. 월 평균 지출액

월 평균 지출액은 <표 3-20>과 같음. 월 평균 지출액은 ①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이 225명(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 ‘50만원 미만’ 185명(26.8%), ③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40명(20.3%), ④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9명(10.0%), ⑤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33명(4.8%), ⑥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15명(2.2%), ⑦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3명(1.9%), ⑧ ‘400만원 이상’ 8명(1.2%), ⑨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명(0.3%) 순으로 나타났음.

<표 3-20> 월 평균 지출액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50만원 미만	185(26.8)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25(32.6)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40(20.3)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9(10.0)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33(4.8)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3(1.9)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15(2.2)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0.3)
400만원 이상	8(1.2)

#### 다. 월 평균 소득액

월 평균 소득액은 <표 3-21>과 같음. 월 평균 소득액은 ① ‘50만원 미만’이 239명(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34명(19.4%), ③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126명(18.3%), ④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91명(13.2%), ⑤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44명(6.4%), ⑥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3명(3.3%), ⑦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18명(2.6%), ⑧ ‘400만원 이상’ 13명(1.9%), ⑨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명(0.3%) 순으로 나타났음.

<표 3-21> 월 평균 소득액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50만원 미만	239(34.6)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34(19.4)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44(6.4)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91(13.2)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126(18.3)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3(3.3)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18(2.6)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0.3)
400만원 이상	13(1.9)

라.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느끼는(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느끼는(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표 3-22>와 같음. 1순위부터 2순위까지에 대한 응답 중에서 ①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 ‘취업 준비의 어려움’, ③ ‘스스로 느끼는 취업 부담’, ④ ‘일자리 조건이 맞지 않음’, ⑤ ‘취업 정보 및 교육의 부족’, ⑥ ‘주변에서 느끼는 취업 부담’, ⑦ ‘취업(준비) 비용 부족’, ⑧ ‘학자금 대출 등의 금융부담’, ⑨ ‘없음’, ⑩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느끼는(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		합계 (순위)
	1순위 (N=690)	2순위 (N=680)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	280(40.6)	84(12.4)	644 (1)
일자리 조건이 맞지 않음	72(10.4)	113(16.6)	257 (4)
취업 준비의 어려움	129(18.7)	117(17.2)	375 (2)
취업 정보 및 교육의 부족	35(5.1)	79(11.6)	149 (5)
취업(준비) 비용 부족	41(5.9)	43(6.3)	125 (7)
주변에서 느껴지는 취업 부담	27(3.9)	78(11.5)	132 (6)
스스로 느끼는 취업 부담	76(11.0)	132(19.4)	284 (3)
학자금 대출 등의 금융부담	12(1.7)	27(4.0)	51 (8)
없음	14(2.0)	5(0.7)	33 (9)
기타	4(0.6)	2(0.3)	10 (10)

주: 합계 점수는 각 순위별 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택인원의 합계를 구한 것임.

마.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는 <표 3-23>과 같음. 1순위부터 2순위까지에 대한 응답 중에서 ①공공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대기업, ③공무원, ④창업, ⑤프리랜서, ⑥중소기업, ⑦기타, ⑧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⑨귀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		합계 (순위)
	1순위 (N=690)	2순위 (N=688)	
공무원	150(21.7)	140(20.3)	440 (3)
공공기관(공사, 정부기관, 공기업)	<b>245(35.5)</b>	<b>178(25.9)</b>	<b>668 (1)</b>
대기업	162(23.5)	167(24.3)	491 (2)
중소기업	16(2.3)	32(4.7)	64 (6)
창업(자영업자 포함)	43(6.2)	62(9.0)	148 (4)
프리랜서	39(5.7)	67(9.7)	134 (5)
귀농·어·촌	6(0.9)	12(1.7)	24 (9)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비영리시민사회단체	6(0.9)	20(2.9)	32 (8)
기타	23(3.3)	10(1.5)	56 (7)

주: 합계 점수는 각 순위별 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택인원의 합계를 구한 것임.

바. 현재 근로 유무

현재 근로 유무는 <표 3-24>와 같음. 근로 ‘유’ 434명(62.9%), 근로 ‘무’ 256명(37.1%)으로 나타남.

<표 3-24> 현재 근로 유무

(단위: 명, %)

구 분	빈도/백분율(N=690)
유	434(62.9)
무	256(37.1)

사. 근로형태

근로형태는 <표 3-25>와 같음. 근로형태는 ①정규직이 203명(4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아르바이트 109명(25.1%), ③비정규직 72명(16.6%), ④기타 39명(9.0%), ⑤자영업 9명(2.1%), ⑥무급가족종사자 2명(0.4%) 순으로 나타남.

<표 3-25> 근로형태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434)
정규직	203(46.8)
비정규직	72(16.6)
아르바이트	109(25.1)
자영업	9(2.1)
무급가족종사자	2(0.4)
기타	39(9.0)



아.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업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업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표 3-26>과 같음.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보통’ 이 164명(3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만족’ 141명(32.6%), ‘매우 만족’ 57명(13.2%), ‘불만족’ 47명(10.9%), ‘매우 불만족’ 24명(5.5%) 순으로 나타남.

<표 3-26>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업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직업 및 직장 만족도	24 (5.5)	47 (10.9)	164 (37.9)	141 (32.6)	57 (13.2)	3.37

자. 근로활동 이외에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종류

근로활동 이외에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종류는 <표 3-27>과 같음. ①저축이 556명(5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주식 238명(23.5%), 가상화폐(코인) 94명(9.3%), ③기타 79명(7.8%), ④부동산 34명(3.3%), ⑤채권 12명(1.2%) 순으로 나타남.

<표 3-27> 근로활동 이외에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종류(복수응답)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1,013)
저축(일시 및 정기예금 등)	556(54.9%)
채권	12(1.2%)
주식	238(23.5%)
가상화폐(코인)	94(9.3%)
부동산	34(3.3%)
기타	79(7.8%)

## 5. 청년 실태(주거)

### 가. 동거인의 종류

동거인의 종류는 <표 3-28>과 같음. ①부모님과 함께 생활이 394명(5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혼자 생활 160명(23.2%), ③혼인 후 가족과 생활 84명(12.2%), ④타인과 생활 34명(4.9%), ⑤기타 18명(2.6%) 순으로 나타남.

<표 3-28> 동거인의 종류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	394(57.1)
혼인 후 가족과 생활	84(12.2)
타인과 생활	34(4.9)
혼자 생활	160(23.2)
기타	18(2.6)

### 나. 거주 중인 곳의 주거형태

거주 중인 곳의 주거형태는 <표 3-29>와 같음. ①아파트 거주가 420명(6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원룸/오피스텔 117명(17.0%), ③다세대/연립/빌라 62명(9.0%), ④기숙사 47명(6.8%), ⑤단독주택 42명(6.1%), ⑥공공임대주택 2명(0.3%) 순으로 나타남.

<표 3-29> 거주 중인 곳의 주거형태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아파트	420(60.9)
다세대/연립/빌라	62(9.0)
단독주택	42(6.1)
원룸/오피스텔	117(17.0)
기숙사	47(6.8)
하숙/쉐어하우스	0(0.0)
고시원	0(0.0)
공공임대주택	2(0.3)
기타	0(0.0)

#### 다. 거주 중인 곳의 점유형태

거주 중인 곳의 점유형태는 <표 3-30>과 같음. ① 자가 354명(5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보증금 있는 월세 161명(22.3%), ③전세 99명(14.3%), ④무상 18명(2.6%), ⑤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13명(1.9%), ⑥기타 4명(6.5%) 순으로 나타남.

<표 3-30> 거주 중인 곳의 점유형태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자가	354(51.3)
전세	99(14.3)
보증금 있는 월세	161(22.3)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13(1.9)
무상	18(2.6)
기타	4(6.5)

#### 라. 거주 중인 곳의 주거비용

거주 중인 곳의 주거비용은 <표 3-31>과 같음. ① ‘부모님이 전적으로 부담’ 이 445명(6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 ‘본인이 부담’ 146명(21.2%), ③ ‘부모님과 본인이 함께 부담’ 76명(11.0%), ④ ‘기타’ 14명(2.0%), ⑤ ‘정부 지원’ 9명(1.3%) 순으로 나타남.

<표 3-31> 거주 중인 곳의 주거비용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부모님이 전적으로 부담	445(64.5)
부모님과 본인이 함께 부담	76(11.0)
본인이 부담	146(21.2)
정부 지원	9(1.3)
기타	14(2.0)

마. 거주 중인 곳의 주거비용 부담(비중이 가장 높은 사람)

거주 중인 곳의 주거비용 부담은 <표 3-32>와 같음. 주거비용 부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사람 순으로 살펴보면, ①부모님의 소득이 470명(6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본인의 소득 159명(23.0%), ③금융기관의 대출 34명(4.9%). ④기타 14명(2.0%), ⑤정부 지원 7명(1.0%), ⑥친인척 및 조부모의 지원 6명(0.9%) 순으로 나타남.

<표 3-32> 거주 중인 곳의 주거비용 부담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부모님의 소득	470(68.1)
친인척 및 조부모의 지원(할아버지 등)	6(0.9)
본인의 소득	159(23.0)
정부 지원	7(1.0)
금융기관의 대출	34(4.9)
기타	14(2.0)

바.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는 <표 3-33>과 같음. 주거환경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74점으로 나타남. ‘만족’ 이 267명(3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보통 184명(26.7%), 매우 만족 165명(23.9%), 불만족 59명(8.6%), 매우 불만족 15명(2.2%) 순으로 나타남.

<표 3-33>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주거환경 만족도	15(2.2)	59(8.6)	184(26.7)	267(38.7)	165(23.9)	3.74

## 6. 청년 실태(문화/여가/사회참여)

### 가. 문화/여가/사회참여 선호 정도

문화/여가/사회참여 선호 정도는 <표 3-34>와 같음. 먼저 **스포츠 활동/관람**에서는 ‘**매우 선호함**’ 이 **230명(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선호함’ 183명(26.5%), ‘보통’ 139명(20.1%), ‘선호하지 않음’ 82명(11.9%), ‘전혀 선호하지 않음’ 56명(8.1%)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문화예술 활동/관람**에서는 ‘**매우 선호함**’ **303명(4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선호함’ 238명(34.5%), 보통 110명(15.9%), ‘선호하지 않음’ 27명(3.9%), ‘전혀 선호하지 않음’ 12명(1.7%)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봉사활동**에서는 ‘**보통**’ 이 **254명(3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선호하지 않음’ 135명(19.6%), ‘선호함’ 128명(18.6%), ‘매우 선호함’ 87명(12.6%), ‘전혀 선호하지 않음’ 86명(12.5%)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종교활동**에서는 ‘전혀 선호하지 않음’ 325명(4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보통’ 136명(19.7%), ‘선호하지 않음’ 119명(17.2%), ‘선호함’ 58명(8.4%), ‘매우 선호함’ 52명(7.5%)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친구모임**에서는 ‘매우 선호함’ 이 321명(4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선호함’ 244명(35.4%), ‘보통’ 97명(14.1%), ‘선호하지 않음’ 20명(2.9%), ‘전혀 선호하지 않음’ 8명(1.2%)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동아리활동**에서는 ‘**보통**’ 이 **248명(3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선호함’ 138명(20.0%), ‘매우 선호함’ 123명(17.8%), ‘선호하지 않음’ 107명(15.5%), ‘전혀 선호하지 않음’ 74명(10.7%)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독서**에서는 ‘**보통**’ 이 **239명(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선호함’ 164명(23.8%), ‘선호하지 않음’ 111명(16.1%), ‘매우 선호함’ 109명(15.8%), ‘전혀 선호하지 않음’ 67명(9.7%)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TV시청**에서는 ‘**선호함**’ 이 **241명(3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매우 선호함’ 173명(25.1%), ‘보통’ 145명(21.0%), ‘선호하지 않음’ 83명(12.0%), ‘전혀 선호하지 않음’ 48명(7.0%)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온라인게임**에서는 ‘**선호함**’ 이 **185명(2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매우 선호함’ 153명(22.2%), ‘전혀 선호하지 않음’ 132명(19.1%), ‘보통’ 119명(17.2%), ‘선호하지 않음’ 101명(14.6%) 순으로 나타남. **여행 및 관광**에서는 ‘**매우 선호함**’ 이 **370**

명(5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선호함’ 212명(30.7%), ‘보통’ 80명(11.6%), ‘선호하지 않음’ 24명(3.5%), ‘전혀 선호하지 않음’ 4명(0.6%) 순으로 나타남.

문화/여가/사회참여 선호정도의 순위는 5점 만점에 평균 ①여행 및 관광이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친구모임 4.23점, ③문화예술 활동/관람 4.15점, ④스포츠 활동/관람 3.65점, ⑤TV시청 3.59점, ⑥독서 3.20점, ⑦동아리활동 3.19점, ⑧온라인 게임 3.18점, ⑨봉사활동 2.99점, ⑩종교활동 2.12점 순으로 나타남.

〈표 3-34〉 문화/여가/사회참여 선호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전혀 선호 하지 않음	선호 하지 않음	보통	선호함	매우 선호함	평균
스포츠 활동/관람	56(8.1)	82(11.9)	139(20.1)	<b>183(26.5)</b>	<b>230(33.3)</b>	3.65
문화예술 활동/관람	12(1.7)	27(3.9)	110(15.9)	<b>238(34.5)</b>	<b>303(43.9)</b>	4.15
봉사활동	86(12.5)	<b>135(19.6)</b>	<b>254(36.8)</b>	128(18.6)	87(12.6)	2.99
종교활동	<b>325(47.1)</b>	119(17.2)	<b>136(19.7)</b>	58(8.4)	52(7.5)	<b>2.12</b>
친구모임	8(1.2)	20(2.9)	97(14.1)	<b>244(35.4)</b>	<b>321(46.5)</b>	4.23
동아리활동	74(10.7)	107(15.5)	<b>248(35.9)</b>	<b>138(20.0)</b>	123(17.8)	3.19
독서	67(9.7)	111(16.1)	<b>239(34.6)</b>	<b>164(23.8)</b>	109(15.8)	3.20
TV시청	48(7.0)	83(12.0)	145(21.0)	<b>241(34.9)</b>	<b>173(25.1)</b>	3.59
온라인 게임	132(19.1)	101(14.6)	119(17.2)	<b>185(26.8)</b>	<b>153(22.2)</b>	3.18
여행 및 관광	4(0.6)	24(3.5)	80(11.6)	<b>212(30.7)</b>	<b>370(53.6)</b>	<b>4.33</b>

## 나. 문화/여가/사회참여 참여 정도

문화/여가/사회참여 참여 정도는 <표 3-35>와 같음. 먼저 스포츠 활동/관람에서는 ‘매우 적음’ 이 171명(2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보통’ 155명(22.5%), ‘많음’ 153명(22.2%), ‘매우 많음’ 114명(16.5%), ‘다소 적음’ 97명(14.1%)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문화예술 활동/관람에서는 ‘많음’ 이 224명(3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보통’ 198명(28.7%), ‘매우 많음’ 115명(16.7%), ‘다소 적음’ 83명(12.0%), ‘매우 적음’ 70명(10.1%)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봉사활동에서는 ‘매우 적음’ 이 220명(3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보통’ 183명(26.5%), ‘다소 적음’ 128명(18.6%), ‘많음’ 102명(14.8%), ‘매우 많음’ 55명(8.0%) 순으로 나타남. 종교활동에서는 ‘매우 적음’ 이 435명(6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보통’ 87명(12.6%), ‘다소 적음’ 84명(12.2%), ‘많음’ 43명(6.2%), ‘매우 많음’ 41명(5.9%) 순으로 나타남. 친구모임에서는 ‘매우 많음’ 이 238명(3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많음’ 218명(31.6%), ‘보통’ 163명(23.8%), ‘다소 적음’ 43명(6.2%), ‘매우 적음’ 27명(3.9%) 순으로 나타남. 동아리활동에서는 ‘매우 적음’ 이 249명(3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보통’ 166명(24.1%), ‘다소 적음’ 130명(18.9%), ‘많음’ 86명(12.5%), ‘매우 많음’ 59명(8.6%)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독서에서는 ‘보통’ 이 220명(3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매우 적음’ 165명(23.9%), ‘다소 적음’ 145명(21.0%), ‘많음’ 109명(15.8%), ‘매우 많음’ 51명(7.4%)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TV시청에서는 ‘많음’ 이 179명(2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매우 많음’ 165명(23.9%), ‘보통’ 163명(23.6%), ‘매우 적음’ 105명(15.2%), ‘다소 적음’ 78명(11.3%) 순으로 나타남. 온라인게임에서는 ‘매우 적음’ 이 204명(2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매우 많음’ 136명(19.7%), ‘많음’ 132명(19.1%), ‘보통’ 127명(18.4%), ‘다소 적음’ 91명(13.2%) 순으로 나타남. 여행 및 관광에서는 ‘많음’ 이 224명(3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보통’ 198명(28.7%), ‘매우 많음’ 148명(21.4%), ‘다소 적음’ 79명(11.4%), ‘매우 적음’ 41명(5.9%) 순으로 나타남.

문화/여가/사회참여 참여 정도 순위는 5점 만점에 평균 ①친구모임이 3.87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②여행 및 관광 3.52점, ③문화예술 활동/관람 3.33점, ④TV시청 3.32점, ⑤스포츠 활동/관람 2.92점, ⑥온라인 게임 2.86점, ⑦독서 2.61점, ⑧봉사활동 2.48점, ⑨동아리 활동 2.39점, ⑩종교활동 1.80점 순으로 나타남.

〈표 3-35〉 문화/여가/사회참여 참여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매우 적음	다소 적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평균
스포츠 활동/관람	171(24.8)	97(14.1)	155(22.5)	153(22.2)	114(16.5)	2.92
문화예술 활동/관람	70(10.1)	83(12.0)	198(28.7)	224(32.5)	115(16.7)	3.33
봉사활동	222(32.2)	128(18.6)	183(26.5)	102(14.8)	55(8.0)	2.48
종교활동	435(63.0)	84(12.2)	87(12.6)	43(6.2)	41(5.9)	1.80
친구모임	27(3.9)	43(6.2)	163(23.8)	218(31.6)	238(34.5)	3.87
동아리활동	249(36.1)	130(18.9)	166(24.1)	86(12.5)	59(8.6)	2.39
독서	165(23.9)	145(21.0)	220(31.9)	109(15.8)	51(7.4)	2.61
TV시청	105(15.2)	78(11.3)	163(23.6)	179(25.9)	165(23.9)	3.32
온라인 게임	204(29.6)	91(13.2)	127(18.4)	132(19.1)	136(19.7)	2.86
여행 및 관광	41(5.9)	79(11.4)	198(28.7)	224(32.5)	148(21.4)	3.52



#### 다.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는 경로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는 경로는 <표 3-36>과 같음. SNS가 401명(5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지인 184명(26.7%), 공공기관 사이트 43명(6.2%), 대중매체 38명(5.5%), 기타 17명(2.5%), 학교 및 학원 7명(1.0%) 순으로 나타남.

<표 3-36>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는 경로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공공기관 사이트	43(6.2)
지인	184(26.7)
대중매체	38(5.5)
SNS	<b>401(58.1)</b>
학교 및 학원	7(1.0)
기타	17(2.5)

#### 라. 문화/여가/사회참여 만족도

문화/여가/사회참여 만족도는 <표 3-37>과 같음. 문화/여가/사회참여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42점으로 나타남. ‘보통’이 325명(4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만족’ 256명(37.1%), ‘불만족’ 50명(7.2%), ‘매우 만족’ 41명(7.4%), ‘매우 불만족’ 8명(1.2%) 순으로 나타남.

<표 3-37> 문화/여가/사회참여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N=690)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문화/여가/사회참여 만족도	8(1.2)	50(7.2)	325(47.1)	256(37.1)	41(7.4)	3.42

## 7. 김해시 청년정책 요구 조사

### 가. 김해시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건

김해시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표 3-38>과 같음. 1순위부터 2순위까지에 대한 응답 중에서 ① ‘청년이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② ‘청년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③ ‘청년이 존중받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④ ‘청년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⑤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⑥ ‘기타’ 순으로 나타남.

<표 3-38> 김해시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건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		합계 (순위)
	1순위 (N=690)	2순위 (N=688)	
청년이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21(46.5)	156(22.7)	798(1)
청년이 존중받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72(10.4)	125(18.2)	269(3)
청년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164(23.8)	191(27.8)	519(2)
청년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74(10.7)	124(18.0)	248(4)
(성, 출신, 학력 등)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52(7.5)	87(12.6)	191(5)
기타	7(1.0)	5(0.7)	19(6)

주: 합계 점수는 각 순위별 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택인원의 합계를 구한 것임.

## 나. 김해시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문제

김해시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는 <표 3-39>와 같음. 1순위부터 2순위까지에 대한 응답 중에서 ① ‘저소득, 중소기업 취업자 등 정책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②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부족함’, ③ ‘일자리 정책 위주로 되어 있어 정책의 다양성이 떨어짐’, ④ ‘청년이 직접적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⑤ ‘홍보부족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⑥ ‘기성세대 등 기존 공동체 구성원과 청년의 화합과 공존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함’. ⑦ ‘사용처 제약과 입증 자료 요구 때문에 불편함’, ⑧ ‘기타’ 순으로 나타남.

<표 3-39> 김해시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문제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		합계 (순위)
	1순위 (N=690)	2순위 (N=687)	
일자리 정책 위주로 되어 있어 정책의 다양성이 떨어짐	123(17.8)	89(13.0)	335(3)
청년이 직접적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119(17.2)	11(17.3)	249(4)
저소득, 중소기업 취업자 등 정책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b>171(24.8)</b>	108(15.7)	<b>450((1)</b>
사용처 제약과 입증 자료 요구 때문에 불편함	20(2.9)	52(7.6)	92(7)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부족함	137(19.9)	<b>173(25.2)</b>	346(2)
기성세대 등 기존 공동체 구성원과 청년의 화합과 공존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함	39(5.7)	56(8.2)	112(6)
홍보부족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70(10.1)	85(12.4)	225(5)
기타	11(1.6)	5(0.7)	27(8)

주: 합계 점수는 각 순위별 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택인원의 합계를 구한 것임.

#### 다. 김해시 생활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김해시 생활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표 3-40>과 같음. 1순위부터 2순위까지에 대한 응답 중에서 ①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가 생활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했고 그 외 ② ‘청년 전체에 대한 보편적 생활안정 지원’, ③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지원 등 자산형성 지원’, ④ ‘저소득 청년 생계비 등 소득지원 확대’, ⑤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및 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 확대’, ⑥ ‘기타’ 순으로 나타남.

<표 3-40> 김해시 생활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		합계 (순위)
	1순위 (N=690)	2순위 (N=688)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255(37.0)	124(18.0)	634(1)
저소득 청년 생계비 등 소득지원 확대	84(12.2)	118(17.1)	236(4)
청년 전체에 대한 보편적 생활안정 지원	184(26.7)	162(23.5)	530(2)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지원 등 자산형성 지원	120(17.4)	183(26.6)	423(3)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및 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 확대	44(6.4)	92(13.4)	180(5)
기타	3(0.4)	9(1.3)	15(6)

주: 합계 점수는 각 순위별 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택인원의 합계를 구한 것임.

라.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표 3-41>과 같음. 1순위부터 2순위까지에 대한 응답 중에서 ① ‘**신혼부부 주택 지원(공급) 확대**’가 가족형성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했고 그 외 ②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형성’, ③ ‘보육·교육 부담 완화’, ④ ‘출산장려금 확대’, 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확대’, ⑥ ‘성차별, 가부장주의, 권위주의 등 부정적 문화 개선’, ⑦ ‘기타’ 순으로 나타남.

<표 3-41>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백분율		합계 (순위)
	1순위	2순위	
신혼부부 주택 지원(공급) 확대	<b>278(40.3)</b>	115(16.7)	<b>671(1)</b>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형성	166(24.1)	<b>168(24.3)</b>	500(2)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확대	56(8.1)	77(11.2)	189(5)
출산장려금 확대	74(10.7)	116(16.8)	264(4)
보육·교육 부담 완화	90(13.0)	161(23.3)	341(3)
성차별, 가부장주의, 권위주의 등 부정적 문화 개선	25(3.6)	51(7.4)	101(6)
기타	1(0.1)	2(0.3)	4(7)

주: 합계 점수는 각 순위별 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택인원의 합계를 구한 것임.

## 8. 청년 사회관계 및 정신건강

### 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표 3-42>와 같음. 사회적 스트레스의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2.17점으로 나타남. ‘근심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2.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안전부절못하거나 성질이 심술궂게 되어간다’ 2.80점,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2.77점, ‘불행하고 우울하게 느낀다’ 2.74점,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느껴진다’ 2.70점, ‘밤이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진다’ 2.68점,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 2.57점, ‘현재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1.99점,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 1.97점,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1.93점,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1.86점, ‘내가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한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각각 1.83점, ‘어떤 일에 바로 착수(시작)할 수 있다’ 1.80점,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78점 ‘전체적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1.76점,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고 느낀다’ 1.68점, ‘기력(원기)이 왕성함을 느낀다’ 1.50점 순으로 나타남.

<표 3-42>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단위: 명, %)

구 분 (N=690)	빈도 / 백분율					평균
	전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매우 그 렇 다	
현재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3 (0.4)	146 (21.2)	303 (43.9)	204 (29.6)	34 (4.9)	1.99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	101 (14.6)	213 (30.9)	255 (37.0)	121 (17.5)	0 (0.0)	2.57

구 분 (N=690)	빈도 / 백분율					평균
	전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느껴진다	40 (5.8)	<b>277</b> (40.1)	<b>224</b> (32.5)	149 (21.6)	0 (0.0)	2.70
근심 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53 (7.7)	182 (26.4)	<b>222</b> (32.2)	<b>233</b> (33.8)	0 (0.0)	<b>2.92</b>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고 느낀다*	0 (0.0)	122 (17.7)	<b>292</b> (42.3)	<b>211</b> (30.6)	65 (9.4)	1.68
기력(원기)이 왕성함을 느낀다*	0 (0.0)	95 (13.8)	<b>240</b> (34.8)	<b>271</b> (39.3)	84 (12.3)	<b>1.50</b>
밤이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진다	51 (7.4)	<b>263</b> (38.1)	<b>229</b> (33.2)	147 (21.3)	0 (0.0)	2.68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0 (0.0)	117 (17.0)	<b>347</b> (50.3)	<b>181</b> (26.2)	45 (6.5)	1.78
전체적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0 (0.0)	105 (15.2)	<b>360</b> (52.2)	<b>179</b> (25.9)	46 (6.7)	1.76
내가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한다*	0 (0.0)	100 (14.5)	<b>402</b> (58.3)	<b>157</b> (22.8)	31 (4.5)	1.83
어떤 일에 바로 착수(시작)할 수 있다*	0 (0.0)	124 (18.0)	<b>343</b> (49.7)	<b>184</b> (26.7)	39 (5.7)	1.80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0 (0.0)	69 (10.0)	<b>379</b> (54.9)	<b>225</b> (32.6)	17 (2.5)	1.83
안절부절못하거나 성질이 심술궂게 되어간다	38 (5.5)	<b>241</b> (34.9)	<b>235</b> (34.1)	176 (25.5)	0 (0.0)	2.80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	14 (2.0)	111 (16.1)	<b>405</b> (58.7)	<b>160</b> (23.2)	0 (0.0)	1.97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46 (6.7)	<b>237</b> (34.3)	<b>255</b> (37.0)	152 (22.0)	0 (0.0)	2.74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50 (7.2)	<b>229</b> (33.2)	<b>241</b> (34.9)	170 (24.6)	0 (0.0)	2.77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0 (0.0)	155 (22.5)	<b>355</b> (51.4)	<b>157</b> (22.8)	23 (3.3)	1.93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0 (0.0)	84 (12.2)	<b>380</b> (55.1)	<b>210</b> (30.4)	16 (2.3)	1.86

\* 역문항으로 평균치를 산출함.

## 나.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표 3-43>과 같음.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4.12점으로 나타남.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준다’,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가 각각 4.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4.24점,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4.20점,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준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준다’ 가 각각 4.17점,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내가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가 각각 4.16점,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준다’ 4.14점,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 가 각각 4.12점,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내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준다’ 가 각각 4.11점,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빌려 준다’ 가 각각 4.10점, ‘대체로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4.09점,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준다’,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준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4.08점,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준다’ 4.06점, ‘내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준다’ 4.05점, ‘내가 아플 때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을 대신해준다’ 4.00점,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준다’ 3.96점 순으로 나타남.



<표 3-43> 사회적 지지

(단위: 명, %)

구 분 (N=690)	빈도 / 백분율					평균
	전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2 (0.3)	14 (2.0)	139 (20.1)	<b>249</b> <b>(36.1)</b>	<b>286</b> <b>(41.4)</b>	4.16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준다	2 (0.3)	10 (1.4)	105 (15.2)	<b>266</b> <b>(38.6)</b>	<b>307</b> <b>(44.5)</b>	<b>4.26</b>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1 (0.1)	8 (1.2)	107 (15.5)	<b>271</b> <b>(39.3)</b>	<b>303</b> <b>(43.9)</b>	<b>4.26</b>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2 (0.3)	16 (2.3)	128 (18.6)	<b>239</b> <b>(34.6)</b>	<b>305</b> <b>(44.2)</b>	4.20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4 (0.6)	13 (1.9)	137 (19.9)	<b>285</b> <b>(41.3)</b>	<b>251</b> <b>(36.4)</b>	4.11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	5 (0.7)	16 (2.3)	135 (19.6)	<b>270</b> <b>(39.1)</b>	<b>264</b> <b>(38.3)</b>	4.12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3 (0.4)	16 (2.3)	<b>147</b> <b>(21.3)</b>	<b>262</b> <b>(38.0)</b>	<b>262</b> <b>(38.0)</b>	4.11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준다	3 (0.4)	15 (2.2)	160 (23.2)	<b>261</b> <b>(37.8)</b>	<b>251</b> <b>(36.4)</b>	4.08
내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준다	3 (0.4)	17 (2.5)	145 (21.0)	<b>263</b> <b>(38.1)</b>	<b>262</b> <b>(38.0)</b>	4.11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준다	5 (0.7)	24 (2.5)	147 (21.3)	<b>263</b> <b>(38.1)</b>	<b>251</b> <b>(36.4)</b>	4.06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1 (0.1)	11 (1.6)	106 (15.4)	<b>277</b> <b>(40.1)</b>	<b>295</b> <b>(42.8)</b>	4.24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3 (0.4)	25 (3.6)	141 (20.4)	<b>254</b> <b>(36.8)</b>	<b>267</b> <b>(38.7)</b>	4.10

구 분 (N=690)	빈도 / 백분율					평균
	전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준다	3 (0.4)	12 (1.7)	131 (19.0)	<b>282</b> <b>(40.9)</b>	<b>262</b> <b>(38.0)</b>	4.14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준다	5 (0.7)	11 (1.6)	115 (16.7)	<b>292</b> <b>(42.3)</b>	<b>267</b> <b>(38.7)</b>	4.17
내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준다	5 (0.7)	23 (3.3)	148 (21.4)	<b>270</b> <b>(39.1)</b>	<b>244</b> <b>(35.4)</b>	4.05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준다	4 (0.6)	19 (2.8)	136 (19.7)	<b>287</b> <b>(41.6)</b>	<b>244</b> <b>(35.4)</b>	4.08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 (0.1)	16 (2.3)	138 (20.0)	<b>281</b> <b>(40.7)</b>	<b>254</b> <b>(36.8)</b>	4.12
대체로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3 (0.4)	15 (2.2)	150 (21.7)	<b>271</b> <b>(39.3)</b>	<b>251</b> <b>(36.4)</b>	4.09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3 (0.4)	16 (2.3)	149 (21.6)	<b>276</b> <b>(40.0)</b>	<b>246</b> <b>(35.7)</b>	4.08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준다	14 (2.0)	29 (4.2)	169 (24.5)	<b>238</b> <b>(34.5)</b>	<b>240</b> <b>(34.8)</b>	<b>3.96</b>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준다	3 (0.4)	9 (1.3)	121 (17.5)	<b>294</b> <b>(42.6)</b>	<b>263</b> <b>(38.1)</b>	4.17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6 (0.9)	11 (1.6)	139 (20.1)	<b>272</b> <b>(39.4)</b>	<b>262</b> <b>(38.0)</b>	4.12
내가 필요로 할 때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빌려 준다	6 (0.9)	17 (2.5)	141 (20.4)	<b>266</b> <b>(40.3)</b>	<b>269</b> <b>(39.0)</b>	4.10
내가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2 (0.3)	14 (2.0)	127 (18.4)	<b>278</b> <b>(40.3)</b>	<b>269</b> <b>(39.0)</b>	4.16
내가 아플 때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준다	16 (2.3)	25 (3.6)	147 (21.3)	<b>256</b> <b>(37.1)</b>	<b>246</b> <b>(35.7)</b>	4.00

#### 다.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표 3-44>와 같음.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나타남.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개별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3.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3.86점,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85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 ‘사람들의 얼굴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3.79점,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3.76점,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3.70점,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3.68점,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3.67점, ‘슬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3.66점,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3.63점,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가 각각 3.60점,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3.59점,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3.57점,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3.56점,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3.53점,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갖고 있다’ 3.47점,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3.37점, ‘나는 재치있는 농담을 잘 한다’ 3.33점,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하게 된다’ 3.06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2.89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2.88점,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2.81점,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 할 것이 별로 없다’ 2.80점, ‘일이 생각대로 잘 안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2.31점 순으로 나타남.

〈표 3-44〉 회복탄력성

(단위: 명, %)

구 분 (N=690)	빈도 / 백분율					평균
	전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개별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8 (1.2)	29 (4.2)	<b>178</b> <b>(25.8)</b>	<b>298</b> <b>(32.2)</b>	177 (25.7)	<b>3.88</b>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5 (0.7)	29 (4.2)	<b>178</b> <b>(25.8)</b>	<b>321</b> <b>(46.5)</b>	157 (22.8)	3.86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8 (1.2)	42 (6.1)	<b>237</b> <b>(34.3)</b>	<b>288</b> <b>(41.7)</b>	115 (16.7)	3.67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15 (2.2)	78 (11.3)	<b>244</b> <b>(35.4)</b>	<b>235</b> <b>(34.1)</b>	118 (17.1)	3.53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8 (1.2)	29 (4.2)	<b>202</b> <b>(29.3)</b>	<b>310</b> <b>(44.9)</b>	141 (20.4)	3.79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8 (1.2)	71 (10.3)	<b>232</b> <b>(33.6)</b>	<b>259</b> <b>(37.5)</b>	120 (17.4)	3.60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28 (4.1)	103 (14.9)	<b>246</b> <b>(35.7)</b>	<b>215</b> <b>(31.2)</b>	98 (14.2)	3.37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4 (0.6)	69 (10.0)	<b>247</b> <b>(35.8)</b>	<b>268</b> <b>(38.8)</b>	102 (14.8)	3.57
일이 생각대로 잘 안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94 (13.6)	<b>214</b> <b>(31.0)</b>	<b>230</b> <b>(33.3)</b>	117 (17.0)	35 (5.1)	2.31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b>237</b> <b>(34.3)</b>	<b>205</b> <b>(29.7)</b>	158 (22.9)	63 (9.1)	27 (3.9)	2.81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17 (2.5)	62 (9.0)	<b>243</b> <b>(35.2)</b>	<b>234</b> <b>(33.9)</b>	134 (19.4)	3.59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 할 것이 별로 없다*	<b>232</b> <b>(33.6)</b>	<b>202</b> <b>(29.3)</b>	165 (23.9)	67 (9.7)	24 (3.5)	2.80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12 (1.7)	48 (7.0)	<b>260</b> <b>(37.7)</b>	<b>251</b> <b>(36.4)</b>	119 (17.2)	3.60

구 분 (N=690)	빈도 / 백분율					평균
	전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16 (2.3)	44 (6.4)	<b>220</b> <b>(31.9)</b>	<b>263</b> <b>(38.1)</b>	147 (21.3)	3.70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갖고 있다	19 (2.8)	76 (11.0)	<b>260</b> <b>(37.7)</b>	<b>231</b> <b>(33.5)</b>	104 (15.1)	3.47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4 (2.0)	40 (5.8)	<b>203</b> <b>(29.4)</b>	<b>272</b> <b>(39.4)</b>	161 (23.3)	3.76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6 (0.9)	35 (5.1)	<b>192</b> <b>(27.8)</b>	<b>279</b> <b>(40.4)</b>	178 (25.8)	3.85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14 (2.0)	63 (9.1)	<b>230</b> <b>(33.3)</b>	<b>242</b> <b>(35.1)</b>	141 (20.4)	3.63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하게 된다*	<b>330</b> <b>(47.8)</b>	<b>163</b> <b>(23.6)</b>	129 (18.7)	43 (6.2)	25 (3.6)	<b>3.06</b>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b>288</b> <b>(41.7)</b>	155 (22.5)	<b>158</b> <b>(22.9)</b>	56 (8.1)	33 (4.8)	2.88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b>276</b> <b>(40.0)</b>	<b>169</b> <b>(24.5)</b>	160 (23.2)	60 (8.7)	25 (3.6)	2.89
나는 재치있는 농담을 잘 한다	36 (5.2)	95 (13.8)	<b>272</b> <b>(39.4)</b>	<b>177</b> <b>(25.7)</b>	110 (15.9)	3.33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14 (2.0)	58 (8.4)	<b>257</b> <b>(37.2)</b>	<b>251</b> <b>(36.4)</b>	110 (15.9)	3.56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15 (2.2)	56 (8.1)	<b>251</b> <b>(36.4)</b>	<b>242</b> <b>(35.1)</b>	126 (18.3)	3.59
사람들의 얼굴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11 (1.6)	32 (4.6)	<b>206</b> <b>(29.9)</b>	<b>284</b> <b>(41.2)</b>	157 (22.8)	3.79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11 (1.6)	50 (7.2)	<b>233</b> <b>(33.8)</b>	<b>266</b> <b>(38.8)</b>	<b>130</b> <b>(18.8)</b>	3.66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14 (2.0)	39 (5.7)	<b>230</b> <b>(33.3)</b>	<b>279</b> <b>(40.4)</b>	128 (18.6)	3.68

\* 역문항으로 평균치를 산출함.

## 라. 우울

우울은 <표 3-45>와 같음. 우울의 평균은 4점 만점에 평균 1.83점으로 나타남.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2.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비교적 잘 지냈다’ 1.77점,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72점, ‘잠을 설쳤다’ 1.70점,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68점, ‘마음이 슬펐다’ 1.55점, ‘상당히 우울했다’ 1.52점,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50점,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46점,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1.44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35점 순으로 나타남.

<표 3-45> 우울

(단위: 명, %)

구 분 (N=690)	빈도 / 백분율				평균
	극히 드물다 (주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주 2~3일)	종종 있었다 (주 4~5일)	대부분 그랬다 (주 6일 이상)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454(65.8)	175(25.4)	52(7.5)	9(1.3)	1.44
비교적 잘 지냈다*	25(3.6)	97(14.1)	<b>262(38.0)</b>	<b>306(44.3)</b>	1.77
상당히 우울했다	<b>435(63.0)</b>	<b>173(25.1)</b>	61(8.8)	21(3.0)	1.52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b>352(51.0)</b>	<b>212(30.7)</b>	93(13.5)	33(4.8)	1.72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b>354(51.3)</b>	<b>218(31.6)</b>	87(12.6)	31(4.5)	1.70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b>474(68.7)</b>	<b>135(19.6)</b>	58(8.4)	23(3.3)	1.46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67(9.7)	120(17.4)	<b>245(35.5)</b>	<b>258(37.4)</b>	<b>2.00</b>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b>499(72.3)</b>	<b>137(19.9)</b>	40(5.8)	14(2.0)	1.68
마음이 슬펐다	<b>423(61.3)</b>	<b>177(26.7)</b>	68(9.9)	22(3.2)	1.55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b>511(74.1)</b>	<b>127(18.4)</b>	41(5.9)	11(1.6)	<b>1.35</b>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b>450(65.2)</b>	<b>155(22.5)</b>	64(9.3)	21(3.0)	1.50

\* 역문항으로 평균치를 산출함.

### 제3절

## 김해시 청년 설문조사 교차분석 결과

### 1. 성별에 따른 청년 인식

#### 가.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생각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생각은 <표 3-46>과 같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모르겠다’ 를 제외하면 남성은 ‘결혼은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1)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6>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성별	구분	결혼에 대한 생각				전체 (N=690)
		결혼은 해야 한다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모르겠다	
남성		67(24.4)	<b>106(38.5)</b>	27(9.8)	75(27.3)	275
여성		57(13.7)	<b>139(33.5)</b>	98(23.6)	121(29.2)	415

$\chi^2=29.170$ ,  $df=3$ ,  $p<.000$

#### 나.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표 3-47>과 같음. 남성은 ‘주거·생계비 등 결혼을 위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1)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7>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성별	구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							전체 (N=145)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주거·생계비 등 결혼을 위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사 노동 부담 때문에	시댁 또는 처가와 의 관계 부담 때문에	결혼 보다는 동거가 낫다고 생각해서	결혼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기타	
남성		9 (25.0)	21 (58.3)	0 (0.0)	2 (5.5)	1 (2.8)	1 (2.8)	2 (5.5)	36
여성		50 (45.9)	36 (33.0)	1 (0.9)	8 (7.3)	3 (2.8)	6 (5.5)	5 (4.6)	109

$\chi^2=23.703, df=7, p<.001$

다.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1순위)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1순위)는 <표 3-48>과 같음. 남성은 ‘적성과 흥미’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급여, 복리 후생 등 경제적 보상’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1)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8>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1순위)

(단위: 명, %)

성별	구분	직업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1순위)										전체 (N= 690)
		적성과 흥미	급여, 복리후생 등 경제적 보상	고용 안정성	워라벨 가능성	산재 위험 등 근무 환경	회사의 전망과 개인의 성장 가능성	일의 가치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	조직 문화	기타	
남성		102 (37.1)	90 (32.7)	26 (9.5)	27 (9.8)	6 (2.2)	9 (3.3)	11 (4.0)	2 (0.7)	0 (0.0)	1 (3.6)	275
여성		114 (27.5)	159 (38.3)	70 (16.9)	42 (10.1)	4 (1.0)	8 (1.9)	9 (2.2)	5 (1.2)	4 (1.0)	0 (0.0)	415

$\chi^2=22.574, df=9, p<.007$



## 2. 성별에 따른 청년 실태

### 가.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1순위)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1순위)는 <표 3-49>와 같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공공기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공공기관 선호율이 남성에 비해 10.0%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01$ )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9>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1순위)

(단위: 명, %)

구분 성별	선호하는 직업 종류(1순위)									전체 (N=690)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	프리랜서	귀농·어촌	비영리	기타	
남성	59 (21.5)	<b>81</b> <b>(29.5)</b>	67 (24.4)	4 (1.5)	30 (10.9)	21 (7.6)	4 (1.5)	3 (1.1)	6 (2.2)	275
여성	91 (21.9)	<b>164</b> <b>(39.5)</b>	95 (22.9)	12 (2.9)	13 (3.1)	18 (4.3)	2 (0.5)	3 (7.2)	17 (4.1)	415

$\chi^2=29.471$ ,  $df=8$ ,  $p<.000$

### 나. 성별에 따른 근로형태

성별에 따른 근로형태는 <표 3-50>과 같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9.0%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01$ )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0> 성별에 따른 근로형태

(단위: 명, %)

구분 성별	근로형태						전체 (N=690)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무급종사자	기타	
남성	<b>66</b> <b>(24.0)</b>	30 (10.9)	35 (12.7)	7 (2.5)	1 (0.4)	28 (17.5)	275
여성	<b>137</b> <b>(33.0)</b>	42 (10.1)	74 (17.8)	2 (4.8)	1 (2.4)	11 (2.7)	415

$\chi^2=30.056$ ,  $df=6$ ,  $p<.000$

다. 성별에 따른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

성별에 따른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 <표 3-51>과 같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SNS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SNS 비율이 17.5%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지인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15.2%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p < .001$ )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1> 성별에 따른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

(단위: 명, %)

구분 성별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는 경로						
	공공 기관 사이트	지인	대중 매체	SNS	학교 및 학원	기타	전체 (N=690)
남성	20 (7.3)	100 (36.4)	14 (5.1)	<b>131</b> <b>(47.6)</b>	4 (1.5)	6 (2.2)	275
여성	23 (5.5)	84 (20.2)	24 (5.8)	<b>270</b> <b>(65.1)</b>	3 (0.7)	11 (2.7)	415

$\chi^2=26.722$ ,  $df=5$ ,  $p<.000$

### 3. 성별에 따른 김해 청년정책 요구 조사

#### 가. 성별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1순위)

성별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1순위)은 <표 3-52>와 같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비율이 12.8%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1)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2> 성별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1순위)

(단위: 명, %)

구분	김해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1순위)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존중받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양질의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기타	전체 (N=690)
성별							
남성	149 (54.2)	33 (12.0)	56 (20.4)	22 (8.0)	11 (4.0)	4 (1.5)	275
여성	172 (41.4)	39 (9.4)	108 (26.0)	52 (12.5)	41 (9.9)	3 (0.7)	415

$\chi^2=20.695$ ,  $df=5$ ,  $p<.001$

나. 성별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문제(1순위)

성별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문제(1순위)는 <표 3-53>과 같음. 남성은 ‘일자리 정책 위주로 되어 있어 정책의 다양성이 떨어짐’의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저소득, 중소기업 취업자 등 정책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많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3> 성별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문제(1순위)

(단위: 명, %)

구분	김해시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문제(1순위)								
	일자리 정책 위주로 되어 있어 정책의 다양성이 떨어짐	청년이 직접적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저소득, 중소기업 취업자 등 정책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많음	사용처 제약과 입증 자료 요구 때문에 불편함	기성세대 등 기존 공동체 구성원과 청년의 화합과 공존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함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부족함	홍보부족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기타	전체 (N=690)
남성	59 (21.5)	55 (20.0)	50 (18.2)	8 (2.9)	49 (17.8)	20 (7.3)	29 (10.5)	5 (1.8)	275
여성	64 (15.4)	64 (15.4)	121 (29.2)	12 (2.9)	88 (21.2)	19 (4.6)	41 (9.9)	6 (1.4)	415

$\chi^2=16.722$ ,  $df=7$ ,  $p<.019$

다. 성별에 따른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

성별에 따른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은 <표 3-54>와 같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신혼부부 주택 지원 확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비율이 13.5%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1)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4> 성별에 따른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

(단위: 명, %)

구분 성별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							
	신혼 부부 주택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형성	경력단 절 여성 취업 지원 확대	출산 장려금 확대	보육· 교육 부담 완화	성차별, 가부장주의, 권익주의 등 문화 개선	기타	전체 (N=690)
남성	133 (48.4)	63 (22.9)	9 (3.3)	33 (12.0)	31 (11.3)	5 (1.8)	1 (0.4)	275
여성	145 (34.9)	103 (24.8)	47 (11.3)	41 (9.9)	59 (14.2)	20 (4.8)	0 (0.0)	415

$\chi^2=28.277$ ,  $df=6$ ,  $p<.000$

#### 4. 연령에 따른 청년 인식

##### 가. 연령에 따른 거주하고 싶은 지역

연령에 따른 거주하고 싶은 지역은 <표 3-55>와 같음. 20대는 부산이 높게 나타났고 30대는 김해가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p < .001$ )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5> 연령에 따른 거주하고 싶은 지역

(단위: 명, %)

구분 성별	거주하고 싶은 지역(N=690)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남해	거창	합천	수도권	부산	기타	전체
20대	50 (9.4)	8 (1.5)	124 (23.3)	2 (0.4)	4 (1.8)	9 (1.7)	1 (1.9)	0 (0.0)	1 (1.9)	1 (1.9)	141 (26.6)	170 (32.0)	20 (3.8)	531
30대	30 (18.9)	4 (2.5)	76 (47.8)	1 (0.6)	0 (0.0)	20 (25.2)	0 (0.0)	1 (0.6)	0 (0.0)	0 (0.0)	21 (13.2)	18 (11.3)	6 (3.8)	159

$\chi^2=69.650$ ,  $df=12$ ,  $p<.000$

##### 나. 연령에 따른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

연령에 따른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은 <표 3-56>과 같음. 20대, 30대 모두에서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20대가 30대에 비해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의 비율이 21.4% 더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01$ )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6> 연령에 따른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

(단위: 명, %)

구분 성별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		
	그렇다	아니다	전체(N=690)
20대	421(79.3)	110(20.7)	531
30대	92(57.9)	67(42.1)	159

$\chi^2=29.444$ ,  $df=1$ ,  $p<.000$

#### 다. 연령에 따른 김해를 떠나고 싶은 이유(1순위)

연령에 따른 김해를 떠나고 싶은 이유(1순위)는 <표 3-57>과 같음. 20대, 30대 모두에서 ‘경제와 일자리’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20대가 30대에 비해 4.7% 더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1)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7> 연령에 따른 김해를 떠나고 싶은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성별	김해를 떠나고 싶은 이유(1순위) (N=690)									
	경제, 일자리	문화, 여가	주거	교육	사회	결혼	정책	가족	기타	전체
20대	221 (52.5)	107 (25.4)	11 (2.6)	10 (2.4)	8 (1.9)	10 (2.4)	8 (1.9)	26 (6.2)	20 (4.8)	421
30대	44 (47.8)	17 (18.5)	3 (3.3)	6 (6.5)	1 (1.1)	12 (13.0)	3 (3.3)	2 (2.2)	4 (4.3)	92

$\chi^2=53.733$ ,  $df=9$ ,  $p<.000$

#### 라. 연령에 따른 김해를 떠나기 싫은 이유(1순위)

연령에 따른 김해를 떠나기 싫은 이유(1순위)는 <표 3-58>과 같음. 20대는 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30대는 주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1)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8> 연령에 따른 김해를 떠나고 싫은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성별	김해를 떠나고 싫은 이유(1순위) (N=690)										
	경제, 일자리	문화, 여가	주거	교육	사회	결혼	정책	가족	타지 역에 대한 무관심	기타	전체
20대	3 (2.7)	17 (15.4)	33 (30.0)	4 (3.6)	4 (3.6)	1 (0.9)	1 (0.9)	37 (33.6)	8 (7.2)	2 (1.9)	110
30대	3 (4.5)	6 (8.9)	25 (37.3)	1 (1.5)	5 (7.5)	1 (1.5)	0 (0.0)	19 (28.4)	5 (7.4)	2 (3.0)	67

$\chi^2=36.926$ ,  $df=10$ ,  $p<.000$

## 5. 연령에 따른 청년 실태

### 가. 연령에 따른 월 지출액 중 지출 비중이 높은 순위(1순위)

연령에 따른 월 지출액 중 지출 비중이 높은 순위(1순위)는 <표 3-59>와 같음. 20대, 30대 모두 식비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30대의 경우 20대에 비해 대출이자와 자녀양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01$ )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9> 연령에 따른 월 지출액 중 지출 비중이 높은 순위(1순위)

(단위: 명, %)

구분 성별	월 지출액 중 지출 비중이 높은 순위(1순위) (N=690)												
	식비	주거비	자기계발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여가비	대출이자	보건의료비	친목활동비	자녀양육비	부모부양비	기타	전체
20대	332 (62.5)	58 (10.9)	23 (4.3)	23 (4.3)	5 (0.9)	38 (7.2)	16 (3.0)	3 (0.5)	20 (3.8)	2 (0.4)	0 (0.0)	11 (2.1)	531
30대	80 (50.3)	22 (13.8)	7 (4.4)	3 (1.9)	0 (0.0)	8 (5.0)	21 (13.2)	0 (0.0)	3 (1.9)	13 (8.2)	1 (0.6)	1 (0.6)	159

$\chi^2=73.172$ ,  $df=11$ ,  $p<.000$

### 나. 연령에 따른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느끼는(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1순위)

연령에 따른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느끼는(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1순위)는 <표 3-60>과 같음. 20대, 30대 모두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30대가 20대에 비해 15.1% 높게 나타났음. 30대에 비해 20대는 ‘취업 준비의 어려움’, ‘스스로 느끼는 취업부담’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1$ )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0〉 연령에 따른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느끼는(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1순위)

(단위: 명, %)

구분 성별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느끼는 어려움(1순위) (N=690)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	일자리 조건이 맞지 않음	취업 준비의 어려움	취업 정보 및 교육의 부족	취업 비용 부족	주변에서 느껴지는 취업 부담	스스로 느끼는 취업 부담	학자금 대출 등의 금융 부담	없음	기타	전체
20대	197 (37.1)	49 (9.2)	113 (21.2)	28 (5.3)	34 (6.4)	19 (3.6)	67 (12.6)	8 (1.5)	13 (2.4)	3 (0.5)	531
30대	83 (52.2)	23 (14.5)	16 (10.0)	7 (4.4)	7 (4.4)	8 (5.0)	9 (5.7)	4 (2.5)	1 (0.6)	1 (0.6)	159

$\chi^2=28.095$ ,  $df=9$ ,  $p<.001$

#### 다. 연령에 따른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1순위)

연령에 따른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는 〈표 3-61〉과 같음. 20대, 30대 모두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가 20대에 비해 22.5% 높게 나타났음. 30대에 비해 20대의 경우 대기업 선호도가 13.4%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1$ )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1〉 연령에 따른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1순위)

(단위: 명, %)

구분 성별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1순위) (N=690)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	프리랜서	귀농·어촌	비영리 시민단체	기타	전체
20대	116 (21.8)	161 (30.3)	141 (26.6)	15 (2.8)	36 (6.8)	34 (6.4)	3 (0.6)	5 (0.9)	20 (3.8)	531
30대	34 (21.4)	84 (52.8)	21 (13.2)	1 (0.6)	7 (4.4)	5 (3.1)	3 (1.9)	1 (0.6)	3 (1.9)	159

$\chi^2=36.602$ ,  $df=8$ ,  $p<.000$

라. 연령에 따른 근로형태

연령에 따른 근로형태는 <표 3-62>와 같음. 20대는 아르바이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0대는 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1)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2> 연령에 따른 근로형태

(단위: 명, %)

구분 성별	근로형태(N=434)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무급종사자	기타	
20대	90 (31.5)	47 (16.4)	<b>107</b> <b>(37.4)</b>	3 (1.0)	2 (0.6)	37 (12.9)	286
30대	<b>113</b> <b>(76.4)</b>	25 (16.9)	2 (1.3)	6 (4.1)	0 (0.0)	2 (1.3)	148

$\chi^2=223.052$ , df=6, p<.000

마. 연령에 따른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

연령에 따른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 <표 3-63>과 같음. 20대, 30대 모두에서 SNS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3> 연령에 따른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

(단위: 명, %)

구분 성별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는 경로(N=690)						전체
	공공사이트	지인	대중매체	SNS	학교 및 학원	기타	
20대	32 (0.6)	142 (26.7)	25 (4.7)	<b>319</b> <b>(60.0)</b>	5 (0.9)	8 (1.5)	531
30대	11 (6.9)	42 (26.4)	13 (8.2)	<b>82</b> <b>(51.6)</b>	2 (1.3)	9 (5.7)	159

$\chi^2=13.045$ , df=5, p<.023

## 6. 연령에 따른 김해 청년정책 요구 조사

### 가. 연령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1순위)

연령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1순위)는 <표 3-64>와 같음. 20대, 30대 모두에서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p < .05$ )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4> 연령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1순위)

(단위: 명, %)

구분 성별	김해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1순위)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존중받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양질의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기타	전체 (N=690)
20대	254(47.8)	63(11.9)	117(22.0)	51(9.6)	41(7.7)	5(0.9)	531
30대	67(42.1)	9(5.7)	47(29.6)	23(14.5)	11(6.9)	2(1.3)	159

$\chi^2=11.204$ ,  $df=5$ ,  $p<.047$

나. 연령에 따른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

연령에 따른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는 <표 3-65>와 같음. 20대는 신혼부부 주택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0대는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형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5> 연령에 따른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

(단위: 명, %)

성별	구분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							전체 (N=690)
		신혼 부부 주택 지원 확대	일· 가정 양립 직장 문화 형성	경력단 절 여성 취업 지원 확대	출산 장려금 확대	보육· 교육 부담 완화	성차별, 가부장 주의, 권위주의 등 문화 개선	기타	
20대		239 (45.0)	111 (20.9)	45 (8.5)	60 (11.3)	65 (12.2)	20 (3.8)	1 (0.2)	531
30대		49 (30.8)	55 (34.6)	11 (6.9)	14 (8.8)	25 (15.7)	5 (3.1)	0 (0.0)	159

$\chi^2=16.772$ ,  $df=6$ ,  $p<.010$

## 1. 개별특성에 따른 영향요인분석

### 가. 개별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분석

개별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표 3-66>과 같음. 성별, 연령대, 자녀유무, 취업유무, 가구원 수, 교육수준,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라 사회적지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먼저 성별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나타냈고 여성의 사회적지지 평균이 4.20점으로 남성의 4.0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01$ )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대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대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타나냈고 20대의 사회적지지 평균이 4.16점으로 30대 4.0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5$ ) 것으로 나타났음.

결혼상태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미혼자의 사회적지지 평균이 4.13점으로 기혼자 4.0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자녀유무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유무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나타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사회적지지 평균이 4.14점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3.9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5$ ) 것으로 나타났음.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유무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나타냈고 미취업자의 사회적지지 평균이 4.20점으로 취업자의 4.01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p < .01$ ) 것으로 나타났음.

가구원 수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구원 수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나타냈고 2인 가구 이상의 사회적지지 평균이 4.16점으로 1인 가구 3.98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p < .01$ )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나타냈고 ‘대학원 이상’의 사회적지지 평균이 4.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대학 재학’ 4.20점, ‘대학 졸업’ 4.02점, ‘고졸 이하’ 3.84점으로 나타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지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p < .001$ ) 것으로 나타났음.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나타냈고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의 사회적지지 평균이 4.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모르겠다’ 4.08점, ‘결혼은 해야 한다’ 4.06점,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4.00점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p < .01$ )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6> 개별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분석

(단위: 명, 점)

구분(N=690)		사회적지지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275	4.00	.707
	여성	415	4.20	.685
	t(p)	-3.519(.000)***		
연령대	20대	531	4.16	.697
	30대	159	4.00	.697
	t(p)	2.388(.017)*		
결혼상태	기혼	89	4.05	.717
	미혼	601	4.13	.697
	t(p)	-1.084(.279)		
자녀유무	없음	616	4.14	.697
	있음	74	3.94	.700
	t(p)	2.284(.023)*		

취업유무	취업	279	4.01	.687
	미취업	411	4.20	.698
	t(p)	-3.447(.001)**		
가구원 수	1인 가구	148	3.98	.736
	2인 가구 이상	542	4.16	.684
	t(p)	-2.783(.006)**		
교육수준	고졸 이하	28	3.84	.842
	대학 재학	361	4.20	.686
	대학 졸업	292	4.02	.686
	대학원 이상	9	4.64	.432
	F(p)	6.811(.000)***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은 해야 한다	124	4.06	.724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245	4.25	.672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125	4.00	.741
	모르겠다	196	4.08	.671
	F(p)	4.347(.005)**		

\*p<.05, \*\*p<.01, \*\*\*p<.001

#### 나. 개별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분석

개별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표 3-67>과 같음. 취업유무,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대, 결혼상태, 자녀유무, 가구원 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특성은 평균의 차이가 미비하게 나타났고 먼저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취업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평균이 3.03점으로 미취업자 2.9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1) 것으로 나타났음.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평균이 3.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모르겠다’ 3.02점, ‘결혼은 해야 한다’ .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각각 2.93점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5)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7> 개별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분석

(단위: 명, 점)

구분(N=690)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275	2.96	.458
	여성	415	2.98	.448
	t(p)	-.550(.582)		
연령대	20대	531	2.97	.463
	30대	159	3.00	.410
	t(p)	-.782(.434)		
결혼상태	기혼	89	2.90	.421
	미혼	601	2.98	.455
	t(p)	-1.673(.095)		
자녀유무	없음	616	2.97	.457
	있음	74	2.97	.409
	t(p)	-.013(.990)		
취업유무	취업	279	3.03	.424
	미취업	411	2.94	.466
	t(p)	2.798(.005)**		
가구원 수	1인 가구	148	2.99	.469
	2인 가구 이상	542	2.97	.447
	t(p)	.373(.710)		
교육수준	고졸 이하	28	3.10	.486
	대학 재학	361	2.94	.453
	대학 졸업	292	3.00	.447
	대학원 이상	9	2.84	.347
	F(p)	2.031(.108)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은 해야 한다	124	2.93	.468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245	2.93	.462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125	3.05	.452
	모르겠다	196	3.02	.419
	F(p)	3.016(.029)*		

\*p<.05, \*\*p<.01, \*\*\*p<.001



#### 다. 개별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분석

개별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표 3-68>과 같음. 취업유무, 교육수준,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대, 결혼상태, 자녀유무, 가구원 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특성은 평균의 차이가 미비하게 나타났고 먼저 취업유무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미취업자의 회복탄력성이 3.71점으로 취업자 3.61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5$ )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수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원 이상’의 회복탄력성 평균이 3.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대학 재학’ 3.72점, ‘대학 졸업’ 3.62점, ‘고졸 이하’ 3.47점 순으로 나타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은 경향을 나타냈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5$ ) 것으로 나타났음.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나타냈고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의 회복탄력성 평균이 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결혼은 해야 한다’ 3.71점, ‘모르겠다’ 3.58점,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3.55점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p < .001$ )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8> 개별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분석

(단위: 명, 점)

구분(N=690)		회복탄력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275	3.63	.609
	여성	415	3.70	.568
	t(p)	-1,495(.135)		
연령대	20대	531	3.69	.600
	30대	159	3.63	.532
	t(p)	1.182(.238)		
결혼상태	기혼	89	3.73	.538
	미혼	601	3.66	.592
	t(p)	.970(.333)		
자녀유무	없음	616	3.68	.594
	있음	74	3.65	.606
	t(p)	.324(.746)		
취업유무	취업	279	3.61	.557
	미취업	411	3.71	.601
	t(p)	-2.049(.041)*		
가구원 수	1인 가구	148	3.65	.653
	2인 가구 이상	542	3.68	.566
	t(p)	-.553(.581)		
교육수준	고졸 이하	28	3.47	.571
	대학 재학	361	3.72	.509
	대학 졸업	292	3.62	.554
	대학원 이상	9	3.95	.324
	F(p)	3.317(.020)*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은 해야 한다	124	3.71	.603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245	3.79	.559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125	3.55	.602
	모르겠다	196	3.58	.569
	F(p)	6.986(.000)***		

\*p<.05, \*\*p<.01, \*\*\*p<.001

## 라. 개별특성에 따른 우울 분석

개별특성에 따른 우울은 <표 3-69>과 같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특성은 평균의 차이가 미비하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p < .05$ )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9> 개별특성에 따른 우울 분석

(단위: 명, 점)

구분(N=690)		우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275	1.80	.459
	여성	415	1.81	.428
	t(p)	-.467(.641)		
연령대	20대	531	1.82	.446
	30대	159	1.77	.416
	t(p)	1.196(.232)		
결혼상태	기혼	89	1.78	.421
	미혼	601	1.81	.443
	t(p)	-.533(.595)		
자녀유무	없음	616	1.80	.442
	있음	74	1.80	.426
	t(p)	.021(.984)		
취업유무	취업	279	1.81	.445
	미취업	411	1.80	.438
	t(p)	.454(.65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8	1.84	.444
	2인 가구 이상	542	1.80	.439
	t(p)	1.155(.248)		
교육수준	고졸 이하	28	2.04	.623
	대학 재학	361	1.80	.430
	대학 졸업	292	1.79	.431
	대학원 이상	9	1.63	.265
	F(p)	3.312(.020)*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은 해야 한다	124	1.76	.415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245	1.78	.396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125	1.89	.530
	모르겠다	196	1.80	.441
	F(p)	2.197(.087)		

\* $p < .05$ , \*\* $p < .01$ , \*\*\* $p < .001$



##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주요 연구결과)

제2절. 김해시 청년 지원 방안(정책 제언)



## 제4장

##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 결론(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김해시 청년 지원방안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청년 자각, 청년 인식, 청년 정책 인식, 청년 실태조사(경제, 주거, 문화/여가/사회참여), 정책요구도 조사, 사회관계 및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특히 다방면의 김해시 청년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김해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청년 관계인구를 포함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 1. 빈도분석 주요내용

2022년 12월말 기준 김해시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3.8%p 감소하여 현재 157,129명의 청년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경상남도를 비롯한 김해시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상남도 전체 청년 유출 인구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겠으나 김해시 또한 청년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 특히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청년 인구의 유출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로 청년 유입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물론 김해시 거주 및 관계인구 청년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음.

김해시 청년 당사자 6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먼저 청년 자각 분야에서는 본인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2.6%로 나타났고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결혼까지가 청년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의 시작과 종료 나이의 평균은 19.7세~37.6세로 나타나 일반적인 정책 지원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과 일치하는 양상을 나타냈음.

청년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열정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불행’ 에 대한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어 청년

본인 스스로를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청년들은 일 자리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주거, 금융 및 부채, 교육 및 사회참여, 문화여가 순으로 나타나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나 주거나 경제적인 지원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청년 인식 분야에서는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주거·생계비 등 결혼을 위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직업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급여, 복리후생 등 경제적 보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적성과 흥미’가 뒤를 이었음. 청년들은 주거나 생계, 결혼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성과 흥미보다 급여와 같은 경제적 보상을 더욱 중요시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앞으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는 김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산,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비율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여건이 허락한다면 김해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74.3%에 달하여 청년 유출에 대한 우려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김해를 떠나고 싶은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 소득 등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찾기 위해서’, ‘더 나은 문화와 여가 생활을 향유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일자리와 경제적 보상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문화·여가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김해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주거환경과 김해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여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기 두려워서(살던 곳이 익숙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청년 정책이 아직까지 청년들이 체감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청년 정책 인식 분야에서는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주거 및 생활 지원 등 생활안정 등에 대한 청년 정책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외 결혼, 출산, 보육 등 가족지원, 교육기회 확대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자기개발 및



자기탐색 지원, 문화·여가활동지원,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및 지원, 권리보호 등 청년 존중문화 형성, 귀농·귀촌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현재 김해시 청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청년정책 분야 이용경험에서는 문화·여가활동 지원, 교육기회 확대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에 대한 청년정책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인식과 일치하는 양상을 나타냈음.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지원 필요 정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부채, 사회참여, 문화·여가 순으로 일관성 있는 응답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김해시 청년 지원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었음. 청년들은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본인의 노력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노력과 가장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 실태(경제) 분야에서는 식비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주거비, 문화여가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월 평균 지출액은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월 평균 소득액은 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느끼는(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취업 준비의 어려움, 스스로 느끼는 취업 부담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선호하는 직업은 공공기관, 대기업, 공무원, 창업, 프리랜서, 중소기업,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비영리 시민단체, 귀농·어·촌 순으로 나타나 높은 임금 또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음.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62.9%로 나타났고 그 중 정규직 46.8%, 아르바이트 25.1%, 비정규직 16.6%, 기타 9.0%, 자영업 2.1%, 무급가족종사자 0.4% 순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합한 비율이 41.7%에 달하고 있음.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업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7점으로 평균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음. 근로활동 이외의 소득 창출을 위한 노력은 저축이 54.9%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주식 23.5%, 가상화폐(코인) 9.3%, 기타 7.8%, 부동산 3.3%, 채권 1.2% 순으로 나타났음.

청년 실태(주거) 분야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응답자가 57.1%

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혼자 생활 23.2%, 혼인 후 가족과 생활 12.2%, 타인과 생활 4.9%, 기타 2.6% 순으로 나타났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가 60.9%으로 가장 많았음. 점유형태는 자가 51.3%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비용은 부모님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64.5%으로 가장 많았음.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4점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만족도가 크게 낮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청년 실태(문화/여가/사회참여) 분야에서는 여행 및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친구모임, 문화예술 활동/관람, 스포츠 활동/관람, TV시청, 독거, 동아리활동, 온라인 게임, 봉사활동, 종교활동 순으로 나타남. 종교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5점 만점에 2.12점으로 매우 낮았음. 문화/여가/사회참여 참여 정도는 친구모임을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 외 여행 및 관광, 문화예술 활동/관람, TV시청, 스포츠 활동/관람, 온라인 게임, 독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종교활동 순으로 나타남. 종교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는 5점 만점에 1.80점으로 매우 낮았음.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는 경로는 SNS와 지인이 가장 많았고 그 외 경로는 거의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문화/여가/사회참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2점으로 크게 높지 않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음.

김해시 청년정책 요구조사 분야에서는 ‘청년이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가 김해시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청년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가 뒤를 이어 청년들이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음. 김해시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는 ‘저소득, 중소기업 취업자 등 정책 대상에 제한적이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부족함’, ‘일자리 정책 위주로 되어 있어 다양성이 떨어짐’, ‘청년이 직접적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청년 당사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김해시 생활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하한 정책은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청년 전체에 대한 보편적 생활안정 지원’,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지원 등 자산형성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과 청년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 지원(공급)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형성’, ‘보육·교육부담 완화’, ‘출산장려금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안정 분야와 마찬가지로 주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청년 사회관계 및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먼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17점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12점,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45점, 우울의 평균은 4점 만점에 1.83점으로 나타났음.

## 2. 교차분석 주요내용

교차분석은 범주형 변수간의 관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이를 통해 카이 제곱 분포(chi-squared distribution)를 확인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 $p < .05 \sim p < .001$ )들에 관하여 작성하였음.

먼저 성별과 관련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생각은 남성과 여성과 모두에서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은 ‘결혼은 해야한다’, 여성은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남성은 ‘주거·생계비 등 결혼을 위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성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1순위)로 남성은 ‘적성과 흥미’, 여성은 ‘급여, 복리 후생 등 경제적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음.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1순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공공기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0% 높게 나타났음. 성별에 따른 근

로형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9.0% 높게 나타났음.

성별에 따른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  
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  
성이 남성에 비해 17.5% 높게 나타났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지인을 통해 정  
보를 얻는 비율이 16.2% 높게 나타났음.

성별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1순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12.8%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의 응답 비율이 9.9%로 나타나 차별에 대한 인식이 남  
성 4.0%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성별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문  
제(순위)는 남성은 ‘일자리 정책 위주로 되어 있어 정책의 다양성이 떨어  
짐’의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저소득, 중소기업 취업자 등 정책 대상이 제  
한적이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많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음. 성별에  
따른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신혼부부 주택 지원 확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  
에 비해 13.5%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거에 대한 부담감을 더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별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선호하는 직  
업, 근로형태, 청년정책 요구도 에서 남성과 여성이 지향하는 청년 지원정책  
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정책 지원방안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  
짐.

다음으로 연령과 관련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연령에 따른 거주  
하고 싶은 지역으로 20대는 부산, 30대는 김해가 높게 나타났음. 20대, 30대  
모두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비율이 높았고 20대가 30대에 비해  
21.4% 더 높게 나타났음. 연령에 따른 김해를 떠나고 싶은 이유(1순위)는 20  
대, 30대 모두 경제와 일자리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김해를 떠나기 싫은 이유  
(1순위)로 20대는 가족, 30대는 주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음.

연령에 따른 월 지출액 중 지출 비중이 높은 순위(1순위)는 20대, 30대 모두 식비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30대가 20대에 비해 대출이자, 자녀양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에 따른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느끼는(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1순위)은 20대, 30대 모두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20대가 30대에 비해 '취업 준비의 어려움', '스스로 느끼는 취업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에 따른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1순위)는 20대, 30대 모두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가 20대에 비해 22.5% 더 높게 나타났음. 20대가 30대에 비해 대기업 선호도가 13.4% 더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직업 선호도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연령에 따른 근로형태는 20대 아르바이트, 30대 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20대의 경우 학업과 병행하고 30대의 경우 취업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연령에 따른 문화/여가/사회참여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 20대, 30대 모두 SNS의 비중이 높았고 그 외 변수들에 대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연령에 따른 김해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1순위)은 20대, 30대 모두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연령에 따른 김해시 가족형성 지원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은 20대 '신혼부부 주택 지원 확대', 30대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형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연령에 따라 거주하고 싶은 지역, 김해를 떠나기 싫은 이유, 근로형태, 가족형성 지원 정책 요구도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김해를 떠나고 싶은 생각, 김해를 떠나고 싶은 이유, 월 지출액 비중,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느끼는(느꼈던) 어려움,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 김해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른 실태 및 요구도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20대와 30대의 청년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3. 개별특성에 따른 영향요인분석 주요내용

개별특성(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에 따른 영향요인분석을 알아보하고자 t-test,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음. 청년의 개별특성과 사회적지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우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개별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분석

개별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성별, 연령대, 자녀유무, 취업유무, 가구원 수, 교육수준,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적지지는 5점 만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t-test 결과, 성별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여성 4.20점, 남성 4.00점으로 여성의 사회적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음( $p < .001$ ), 연령대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20대 4.16점, 30대 4.00점으로 20대의 사회적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음( $p < .05$ ), 자녀유무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자녀 없음’ 4.14점, ‘자녀 있음’ 3.94점으로 ‘자녀 없음’의 사회적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음( $p < .05$ ),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미취업자 4.20점, 취업자 4.01점으로 미취업자의 사회적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음( $p < .01$ ). 가구원 수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2인 가구 4.16점, 1인 가구 3.98점으로 2인 가구 이상의 사회적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음( $p < .01$ ).

다음으로 One-Way ANOVA 분석 결과,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대학원 이상’ 4.64점, 그 외 ‘대학 재학’ 4.20점, ‘대학 졸업’ 4.02점, ‘고졸 이하’ 3.84점으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지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p < .001$ ).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4.25점, 그 외 ‘모르겠다’ 4.08점, ‘결혼은 해야 한다’ 4.06점,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4.00점 순으로 나타났음( $p < .01$ ).

#### 나. 개별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분석

개별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취업유무,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대, 결혼상태, 자녀유무, 가구원 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5점 만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t-test 결과,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취업자 3.03점, 미취업자 2.94점으로 취업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음 ( $p < .01$ ).

다음으로 One-Way ANOVA 분석 결과,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3.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모르겠다’ 3.02점, ‘결혼은 해야 한다’,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각각 2.93점 순으로 나타났음( $p < .05$ ).

#### 다. 개별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분석

개별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취업유무, 교육수준,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대, 결혼상태, 자녀유무, 가구원 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t-test 결과, 취업유무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미취업자 3.71점, 취업자 3.61점으로 미취업자의 회복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났음( $p < .05$ ).

다음으로 One-Way ANOVA 분석 결과, ‘대학원 이상’의 회복탄력성 평균이 3.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대학 재학’ 3.72점, ‘대학 졸업’ 3.62점, ‘고졸 이하’ 3.47점 순으로 나타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은 경향을 나타냈음( $p < .05$ ).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의 회복탄력성 평균이 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결혼은 해야 한다’ 3.71점, ‘모르겠다’ 3.58점,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3.55점 순으로 나타났음

( $p < .001$ ).

#### 라. 개별특성에 따른 우울 분석

개별특성에 따른 우울은 교육수준에 따라 우울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p < .05$ )  
고졸이하 > 대학 재학 > 대학 졸업 > 대학원 이상



## 제2절

## 김해시 청년 지원방안(정책 제언)

김해시의 경우 청년전담 부서를 운영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정책에서 보완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청년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청년 정책의 지원범위를 연령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각 시기마다 청년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정책대상을 크게 취업 전 청년, 취업 후 결혼 전 청년, 결혼 및 출산 이후 청년으로 구분하였음.

### 1. 취업 전 청년 정책 지원방안

#### 가. 맞춤형 일자리 확대

취업 전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을 뜻하며 취업 전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은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결혼에 대한 부담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특히 급여, 복리후생 등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일자리 수의 증가와 더불어 물론 양질의 일자리, 높은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함. 청년의 74.3%는 여건히 허락한다면 김해를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 소득 등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찾기 위해서’ 라고 응답했음. 즉,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공무원, 대기업 등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노력들이 가장 근본적인 청년 유출을 줄이고 청년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20대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 이외에도 대기업 선호도가 높았고 김해를 떠나고 싶은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 20대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직업 선택에 있어 남성은 ‘적성과 흥미’, 여성은 ‘급여, 복리 후생 등 경제적 보상’을 더 중요하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정책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임.

## 나. 취업 및 창업 지원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있었으나 20대는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준비의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았고 스스로 취업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대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학교 및 취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취업성공패키지, 모의면접,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취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취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 노동을 통한 소득창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련의 과정으로 과거 청년 세대와는 다른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정책 지원과 더불어 기성세대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함께 뒷받침되어야 청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2. 취업 후 결혼 전 청년 정책 지원방안

### 가. 문화·여가 활성화 및 지원

문화·여가에 대한 지원은 모든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욕구의 우선순위로 보았을 때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청년들이 다음 단계로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욕구라고 할 수 있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 다음으로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청년을 유출을 줄이고 청년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방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여가 지원 정책 또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선호도가 높은 여행·관광, 친구모임 지원,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지역경제와 청년을 위한 문화·여가 포인트를 지급한다거나 지역 내 식당을 일정금액 이상 또는 이용 횟수에 따라 방문을 인증하면 영화티켓이나 공연관람티켓을 지급, 여행비 지급 등의 방안이 있을 것임. 정책의 도입단계에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으나 청년에 대한 아낌없는 정책 지원이 곧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임을 생각해야 할 것임.

## 나. 자산 형성 지원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문화·여가생활을 향유하는 만큼이나 자신의 자산을 증식을 통해 주거와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임. 그러나 현 세대의 청년들은 높은 금리와 고물가의 지속으로 인해 소득의 대부분을 금융대출 이자비용 충당이나 생활비 지출에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주거를 마련하고 결혼에 대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주거와 생계비, 결혼자금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생각마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안정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 청년 내일 저축계좌,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년들의 이러한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연령과 소득의 범위 등 지원대상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이마저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이러한 정책은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직접적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청년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3. 결혼 및 출산 이후 청년 정책 지원방안

### 가. 주거 지원

주거에 대한 지원은 앞서 열거한 청년 정책 지원방안과 더불어 청년 세대가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임. 주거는 개인의 안정과 생활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형성을 위해 필요하며, 나아가 지방소멸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상승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청년들은 생활안정과 가족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및 신혼부부 주택지원(공급)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특히 김해를 떠나고 싶은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았으나 신혼부부 주택 지원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 내에서의 주거문제가 해결된다면 청년 유출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나.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형성 지원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주거에 대한 부담과 출산에 대한 부담이 과거에 비해 많이 경감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다수의 민간기업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임. 육아휴직이나 자녀돌봄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주변의 시선이나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여성들은 경력단절이 발생하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게 됨.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형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겠으나 상대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함.

## 4. 기타 청년 정책 지원방안

### 가. 사회관계 및 정신건강관리 지원

청년의 개별적 특성과 사회관계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와 개별 특성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회복탄력성,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우울과의 관계는 개별특성에 의한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책 지원을 통해 청년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의 마음가짐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관리와 우울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청년의 사회관계와 정신건강관리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 정책의 효과를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년을 위한 정책에는 일자리, 복지, 주거, 문화, 여가 뿐만 아니라 보건 영역 등 다방면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5. 김해시 청년 정책 지원 방안

앞서 열거한 김해시 청년 정책 지원 방안을 정리하면 <표 4-1>와 같다.

<표 4-1> 김해시 청년 정책 지원방안

구 분	내 용
취업 및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 및 홍보 활성화</li> <li>· 취·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li> <li>· 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성화</li> <li>· 취업 및 창업 지원 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지원 대상 확대</li> <li>· 취·창업 멘토링, 네트워크 형성 지원</li> <li>· 취·창업 스트레스 관리 및 각종 심리상담 지원</li> </ul>
문화 및 여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여가 동아리 활동비 지원 및 장소 제공</li> <li>·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li> <li>· 김해지역 문화·여가 포인트제 도입 및 지원</li> <li>· 청년 1인 가구 및 가족단위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li> </ul>
자산 형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해시 청년계좌(적금) 도입</li> <li>· 김해시 청년 기본소득 도입</li> <li>· 자산관리 컨설팅 및 교육 지원</li> </ul>
주거 및 가족형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li> <li>·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금 확대</li> <li>· 신혼부부 주택지원 확대</li> <li>· 공공주택(임대) 공급 확대</li> <li>· 김해시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세금 감면 혜택 제공</li> <li>·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li> </ul>
청년권리 보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인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임금체불 및 기타 부당행위에 대한 모니터링</li> <li>- 무료 법률지원을 통한 구제</li> <li>- 직장 내 갑질문화 및 4대 폭력 근절 대책 마련 등</li> </ul> </li> </ul>
사회관계 및 정신건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지소) 정신건강 관리 지원 확대</li> <li>·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지원 확대</li> <li>· 대학생 취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도입</li> <li>· 취업자 대상 찾아가는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도입</li> </ul>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해청년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 확대</li> <li>· 김해시 사랑카드 도입(지역경제 활성화 및 혜택UP)</li> <li>· 김해시 청년사랑 앱 구축을 통한 청년정책 지원 정보 제공</li> <li>· 청년 정책 홍보 창구 활성화(SNS 적극 활용)</li> <li>· 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공간 확대</li> <li>· 청년 참여 예산제 및 정책 참여 활성화</li> </ul>

## □ 참고문헌

### ○ 문헌

김해시 일자리경제국(2022). 2022 김해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경상남도(2020). 경상남도 청년실태조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2020). 2020년 부산진구 청년실태조사.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2019). 2019~2023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 ○ 인터넷

김해시 공공데이터 플랫폼(<http://stat.gimhae.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 김해시 청년 지원방안 연구

---

펴    냄 : 2022년 12월

발 행 인 : 최 정 규

연구책임 : (재)김해시복지재단 정책감사팀 김대준

발 행 처 : (재)김해시복지재단 정책감사팀

주소 :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 46(삼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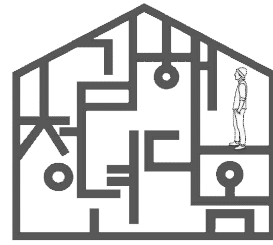
전화 : 055-336-2400

팩스 : 055-336-3131

[www.ghwf.or.kr](http://www.ghwf.or.kr)

[www.facebook.com/ghwf2400](https://www.facebook.com/ghwf2400)

---



Gimhae Youth DAOM